



時計塔

SIGETOP



2014년 7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1권 3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徐仁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倫錫 徐亮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편집인: 李元澤 羅斗燮 李善姬 李熙景 許善行

시계탑 창간 40주년 맞아

나는 1974년 6월 29일, 우리 큰 아들 아이가 13세로 되던 날에 시계탑을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과 의논한 끝에, 우리들이 잊지 못하는 대학병원 시계탑을 우리 동창회 신문의 이름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신문을 읽으면서 그리운 모교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교의 시계탑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조 시대인 1907년에 정부가 국립병원 건립을 반포했고 그 다음 해인 1908년에 독일인의 설계로 현대 병원건물이 낙성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계탑이 출현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잊지 못할 건물입니다.

1974년에 미국 내에서 한국말로 쓴 신문은 한국일보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계탑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시작된 한국말 신문입니다. 시계탑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발행하는 함춘 시계탑이 출판되기 5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글 컴퓨터는 물론 없었고, 한글 타자기를 가진 사람도 몇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시계탑 출판을 시작한 후 처음 몇 호에는 한자를 섞어서 냈는데, 중국 신문에서 한자들을 잘라 놓아야 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과거 40년 동안 시계탑 출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번씩, 출판된 원고들을 모아서 '시계탑 문집'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위하여 좋은 신문을 출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계탑이 우리 동문들이 즐겨서 읽을 수 있는 출판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늘 간절합니다. 그 동안 주옥과 같은 글들과 귀중한 소식들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시계탑 편집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노용면(55, 초대편집장, 자문위원)

시계탑이 창간된 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시계탑은 미주동문들의 고난과 환희의 역사를 담아왔고, 우리 동문들에게 서로의 생활과 꿈과 경험을 전달해주는 좋은 다리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방면의 현대문명이 그러하지만, 특히 의학문명은 지난 30~40년 동안 최고 속도로 발전하여, 진단, 치료, 예방이 철저하고 정확해졌으며, evidence-base의 효율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사들의 하루는 몸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쉴 새 없이 긴장하고 빈틈없는 기민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계탑은 그런 다급한 얼굴에 미소를 불러다주는 짧은 휴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창회는 1928년 졸업 선배님부터 2014년 졸업 후배까지 86년, 강산이 8번 반씩이나 바뀌는 여러 세대가 동창회라는 한 지붕아래 살고 있는 대가족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동문들의 눈에는 누런 종이의 시계탑이 고리타분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경륜과 눈물과 환희가 함께 엉클어져 누렇게 색이 바랜 이 시계탑은 있어서도, 버려서도 안 되는 우리 동창회의 등뼈이자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종이판 시계탑을 현대문명의 속도에 발맞추어 어떻게 인터넷 세대와 조화시켜 86년 세월의 간격을 갖고 있는 동문들을 함께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지는 새로 중책을 맡으신 이원택(71) 편집장님이 해결해 가야할 과제일 것입니다.

초대 노용면 편집장님, 지난 10년 동안 수고하신 11대 김병석 편집장님 등 모든 전임편집장, 편집위원, 자문위원들은 물론 주옥같은 작품들을 기고해주신 동문들과 가족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창회의 정신적인 지주, 시계탑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인석(73, 8대편집장, 미주동창회장)



시계탑 역대 편집장들

- | | | |
|-------------------|-------------------|-------------------|
| 노용면(55) 1974-1979 | 김승업(60) 1979-1980 | 이회경(61) 1980-1982 |
| 송관호(64) 1982-1985 | 허선행(64) 1985-1988 | 유진일(67) 1988-1989 |
| 임인우(69) 1989-1994 | 서인석(73) 1994-1997 | 노재홍(71) 1997-1999 |
| 서 람(69) 1999-2003 | 김병석(59) 2003-2014 | 이원택(71) 2014- |

就任辭

신임회장 서인석(73)



친애하는 서울의대 선후배 동문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동창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알래스카 크루즈 학술대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김성환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와 찬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미주 동창회가 있기까지 역대 회장단들이 얼마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동창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성장한 동창회를 부족한 제가 한 해 동안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미주 동창회는 지금까지 모교 및 모교동창회와 긴밀한 왕래와 협조를 유지해 왔으며, 동문들과 가족들 사이의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장학금 및 기여금을 통해 한인 사회에도 공헌을 하여왔고 지난 15년간 Green Project를 통해 모교학생들과, 특히 갓 졸업한 후배동문들과도 긴밀한 교류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동창회는 지금 동창들의 평균 나이가 72세라는 것,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극도로 저조하다는 두 가지 큰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동문들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총 1168명의 동문들 중 78%를 차지하는 57~73년 졸업 동문들이 전체참석자들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률이 저조한 56년 이전에 졸업하신 선배님들보다 더욱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고 있는 74년 이후 졸업한 후배동문들의 원인분석은 말 그대로 오리무중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는 부족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와 끈기는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의대 동창회는 점점 젊어지고 커지고 융쳐가는 동안 우리 서울의대 동창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노쇠해간다면, 우리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등의 최고 대학들이 여전히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까닭은 각 동문들이 숭신수범하여 모교와 모교동창회에 협조하고 후배들의 사회 진출을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가쪽입니다. 현재 우리 미주 서울의대 동문들은 한인 사회에서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서도 그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존경받고 있습니다. Global Networking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1168명 동문들의 인맥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대 동창회의 일원이라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들/ 딸/ 손자들도 모임에 데리고 오십시오. 젊은 동문들은 미주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여 선배들을 만나 뵙고, 레지던트 자리와 취업설계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서울의대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미주 동창회를 21세기의 새로운 밤향으로

離任辭

회장 김성환 (71)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차기회장의 준비 수업도 없이 회장직을 맡고 연례 컨벤션을 전상 학술대회로 정하며 걱정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새 일년이 주마등처럼 지났는지 시계탑의 이임사를 채근 받으니 시간은 진정 화살같이 빠름을 실감합니다.

임기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부족한 저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쁜 일정을 뒤로 미루고 선상 학술대회를 참가 해주신 동문들의 여러 가족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사랑이 컨벤션을 만족스럽고 알차게 이루었습니다.

금년 학술대회에서는 예상외로 날씨가 따뜻해서 여행하기가 좋았고, 감사님들이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다 강의를 듣는 청중 역시 명석하신 수재 분들이시라 컨벤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번 7월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계탑 발행 40주년 기념문집 발행과 동창회 주소록 발행 등의 큰 일들을 맡아 주실 서인석 신임회장과 시계탑 편집인으로 일 년동안 수고해 줄 이원택 동문 및 새 임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가지 미완성으로 남은 것은 신임회장 다음으로 수고할 차기 회장(7/1/15~6/30/16)을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자발적이던 주변에서 추천을 해 주시든지, 신임회장을 북마르게 찾고 있으니 모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김일영 전임회장 및 저와 함께 수고해주신 임원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동창회장이란 새로운 차원에서의 경험을 귀중하게 간직할 것 입니다.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Green project, Directory Update, Community Out Reach, 시계탑 문집 등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행히 79~2002년 졸업한 많은 후배 동문들이 동창회에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닦은 울려졌습니다.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목적지를 향해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친애하는 서울의대 선후배 동문 여러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확실한 협조는 "참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11월 22일 뉴저지 Fort Lee에 있는 Double Tree Hilton Hotel에서 있을 연말 파티와 내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뉴저지 Teaneck에 있는 Glenpointe Marriott에서 있을 학술대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2015 Officer and Committee Chairs

	Name	Cellular Phone	E-Mail
President	Seo, In Suk (73)	(551) 587-3212	ins9002@gmail.com
President Elect			
1st Vice President	Han, Min Woo (75)	(201) 704-7085	tinahan34@gmail.com
2nd Vice president	Choi, Andrew K. (76)	(626) 818-4013	thevipsurgery@gmail.com
Secretary	Hahn, Chang-gyu (81)		hahnc123@gmail.com
Associate Secretary	Park, Sung Chul (99)	(646) 295-7389	sungchulpark1225@gmail.com
Treasurer	Shim, Mark Inbo (83)	(917) 561-8972	markinboshim.md1@gmail.com
Committee Chairmen			
Finance	Choi, Soon Chae (66)	(908) 304-2922	soonchoi@aol.com
Scholarship	Lee, Youngin (86)	(201) 248-1630	fl127@columbia.edu
Fund Raising	Chu, Jai Ock (63)	(201) 306-4221	jaiochu@yahoo.com
Schol.Fund Management	Lee, Myunghee (66)	(914) 844-7439	DocM4@aol.com
Research & Fellowship	Cho, Sechin (71)	(410) 440-0213	cho3gene@gmail.com
Green Project	On, Mooyeon (89)	(201) 390-2202	mohpark@gmail.com
Publication	Lee, Won Tak (71)	(562) 743-1436	wonlee0120@gmail.com
By Laws	Rho, Yong-Myun (55)	(914) 738-4511	ymrhond@optonline.net
Advisory & Exchange	Lee, Man-Tack (58)	(215) 913-7519	mmtlee@hotmail.com
Nominating	Kim, Sung Hwan (71)	(323) 979-1512	sunghwkim@yahoo.com
Silver Project	Huh, Sun Haeng (64)	(201) 401-5248	sun.h.huh@gmail.com
Office Management	Kang, Changhong (71)	(551) 206-5253	ppkng@hotmail.com
Charity	Choi, Young Ja (66)	(203) 733-9937	ychoikim@gmail.com
Directory	Moon, Dai Ok (73)	(302) 983-7669	dmoon625@hotmail.com
Community Out Reach	Lee, Seung Ho (79)	(973) 202-7718	emha3267@yahoo.com
Convention Co-Chair	Choi, John J. (64)	(201) 615-0616	johnjcoimd@yahoo.com
Convention Co-Chair	Auh, Yong Ho (72)	(201) 951-3484	yonghoauh@gmail.com
Scientific Chair	Kang, Yoogoo (71)	(609) 923-4115	yoogoo.kang@jefferson.edu
Non-CME Co-Chair	Mrs. Han, Min Woo (75)	(201) 704-7085	tinahan34@gmail.com
Non-CME Co-Chair	Mrs. Kim, Won Jung (75)	(734) 717-1953	wunjung.kim@rutgers.edu

Local Chapter President

New England (Boston)	Choi, In-Sup (72)
in.sup.choi@lahay.org	(718) 883-7970
Greater NY	Han, Min Woo(75)
tinahan34@gmail.com	(201) 704-7085
Central NY (Syracuse)	Min, Balshik(66)
balshikm@msn.com	(315) 525-1990
Western NY (Buffalo)	Chun, Young Sung(67)
jys1941@verizon.net	(716) 359-5037
Nothern NY (Albany)	Han Sung Taik(57)
shan242700@yahoo.com	(845) 331-7712
Greater Philadelphia	Kim, Young Nam(68)
kimyn@einstein.edu	(215) 778-9794
Maryland	Shin, Young Cheol(59)
ycshin1218@gmail.com	(410) 272-7049
Nothern OH (Cleveland)	Lee, Ke Suk(73)
keslee@gmail.com	(216) 218-7348
Central OH (Columbus)	Choy, Young C.(71)
ycchoy@hotmail.com	(614) 406-4156
Western OH(Cind.Dayton.Li)	Lee, Kun Il(68)
kleetraveler3@gmail.com	(513) 310-8278
Minesota	Kim, Tae Hwan(64)
Taekim19@gmail.com	(612) 207-4652
Texas	Kim, Poong Young(72)
poongykim@aol.com	(713) 973-2550
Southern CA	Choi, Andrew(76)
thevipsurgery@gmail.com	(626) 818-4013
Michigan	Kim, Luke Yushik(71)
lyskim@hotmail.com	(734) 972-0172
Greater Chicago	Choh, Joong Haeng(69)
jhcspc@naver.com	(847) 636-9799

SNUCMAA Class Representative 2014-2015

Class	Name	E-Mail Address	Cell Phone	Class	Name	E-Mail Address	Cell phone
1955	Kim, Ung Sik	ungskim@yahoo.com	(614) 889-8873	1972	Suk, Chang Ho	changhsuk@gmail.com	(917) 232-3500
1957	Chung, Edward K.	edwardkchungmd@yahoo.com	(407) 952-2288	1973	Rim, June Hyung	june.rim@nyumc.org	(201) 803-6386
1958	Lee, Man-Tack	mmtlee@hotmail.com	(215) 913-7519	1974	Lee, Hong Je	hongjelee48@hotmail.com	(516) 365-2845
1959	Choi, JongJin	choi007@optonline.net	(631) 979-6579	1975	Kim, Wun Jung	wjkim@upmc.edu	(734) 717-1953
1960	Chon, Hikon	hikonchon@gmail.com	(267) 231-8980	1979	Kim, Chee Gap	cheegap@gmail.com	(201) 407-9644
1961	Hwang, Hyon Sang	hwang84301@yahoo.com	(813) 924-3900	1981	Kim, Richard	rhwkim@hotmail.com	(302)981-2567
1962	Ryu, Chunkee	ckryumd@yahoo.com	(714) 357-0559	1983	Chun, WonIl	wichusa@hotmail.com	(917) 923-6018
1963	Han, Ki Hyun	kihan00@yahoo.com	(973) 818-0515	1985	Kim, Yongjung	yjkimmd81@gmail.com	(201) 625-3331
1964	Hong,Sunkyung	sjulinanhong@yahoo.com	(315)525-5415	1986	Lee, Francis Y.	fl127@columbia.edu,	(201) 248-1630
1965	Choung, Kilwha	kchoung314@gmail.com	(614) 314-6078	1989	Oh, Mooyeon	mohpark@gmail.com	(201) 242-0229
1966	Choi, Soon Chae	soonchoi@aol.com	(908) 304-2922	1990	Sohn, Jeong-hyun	eyedrsohn@yahoo.com	(443) 542-7042
1967	WooH, Kenneth J.	nkenjanewooh@gmail.com	(646) 784-3276	1992	Cho, Sheldon K.	anapaclinic@gmail.com	(310) 994-8275
1968	Seo, Youn Seok	younseokseo2004@gmail.com	(419) 234-4154	1994	Ahn, Sang-Hoon	doctahn@gmail.com	(213) 245-0788
1969	Yook, Soonjae	soonjae134@gmail.com	(973) 525-4398	1999	Park, Sung Chul	seanpark120@gmail.com	(646) 295-7389
1970	You, Chul Hee	Chul@wavecable.com	(360) 565-1107	2000	Kang, Hyunseok	hyunseok_kang@hotmail.com	(248) 227-6065
1971	Kang, Tai Soo	seoulk0@gmail.com	(248) 227-6065	2001	Kim, Tae Kon	Kim.taekon@gmail.com	(267) 971-7893
				2002	Huh, Won Jae	wonjaehuh@empal.com	(314) 482-3156

제1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14년 5월 17일, 오후 3시 15분
 장소: Celebrity Solstice Alaska Sawyer Glacier Cruise
 참석자: 정정수(62) 김태환(64) 민발식(66) 강유구(71) 김성환(71) 김일영(71) 김창구(71) 이원택(71) 이창우(71) 정인용(71) 조세진(71) 고용규(73) 서인석(73) 전경배(75) 최광휘(76) 박찬형(62) as Guest
 Proxy: 한성택(57) 채규철(59) 최종진(59) 전희근(60) 황현상(61) 여천기(62) 한기현(63) 송영두(62) 허선행(64) 주의돈(64) 정길화(65) 민발식(66) 한동수(66) 최영자(66) 최순채(66) 이건일(68) 김병오(69) 엄규동(69) 조영갑(70) 이성춘(70) 김유식(71) 박승용(71) 오용호(72) 김풍영(72) 이계석(73) 박일우(77) 김동훈(77) 백승원(79)



1. 성원 점검 후 3시15분에 김성환 회장이 개회를 선언함.
2. 2012-2013 제2차 대의원회 초록을 수정 없이 동의와 재청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3. 김성환 회장이 제31차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Celebrity Solstice 선상에서 인사말이 간략하게 있었고 서인석 차기 회장의 말이 뒤따랐음.
4. 고용규 재무의 현재 은행잔고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각 부분별 잔고보고가 있었음.

Committee 보고:

1. Scholarship Committee (서인석 위원장):
 - (1) 장학위원들의 서류심사후 10명의 SNUCMAA of NA Scholarship 후보 중, 권순일, 안빈, 박경강, 김진아, 유혜리 등 5명, 4명의 김태웅(63)장학금 후보 중 본과 1년 허근영과 본과 4년 신준성 2명을 선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2) 김태웅(63)장학금 \$5,000과 미주동창회 장학금 \$10,000 합계 \$15,000을 서울 대학교의과대학 학생부학장에게 송금시킬 예정임.
 - (3) Young member 중 Directory information update 및 SNS 운용에 대한 지불건에 대해 토의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킴.
2.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서면 보고.
3.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서면 보고; 시계탑 40주년 기념문집 발행과 기념행사는 2015년 연례 학술대회와 겹쳐서 할 예정임.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기를 기대함.
4.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Report(조세진 위원장): 한창규(81) 장학기금으로 Lecturer로 안영준(93)동문과 가족을 학술대회에 초청함. 한창규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포함.
5. Green Project Committee Report(이영인 위원장): 서면 보고; 지난 4월 13일 모교에 가서 "Daily Academic and Clinical Activities in US" 라는 강의를 130여 명의 의과대학생들에게 했음. 5-10명이 미주 이주에 흥미를 보였고 현 학생이나 최근 졸업생으로 미국내 수련의 과정을 준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email로 연락하고 있음.
6. Charity Committee(최영자 위원장): 서면 보고; COCO(뉴욕장에 아동 코코 서비스 센터)로 부터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3년째로 년 \$3,000)을 요청 함.

New Business:

1. 박찬형(62)동문의 CME Topic(미주 한인 위암환자 현황 및 대안)에 대한 토의 후, 미주동창회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기 위한 Ad Hoc Committee를 두기로 함.
 2. 현 회칙에는 정회원과 명예회원 뿐으로 모교의 예과나 의과대학 재학 중 북미주로 이주하여 의과대학을 마치고 미주에서 의사 면허증을 받고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을 준회원으로 받아 주도록 By-law Committee에서 회칙 개정제고를 요청함.
- 끝으로 김성환 회장의 감사 말과 더불어 Alaska Cruise 학술대회에 많은 분들의 참석과 기부로 협조하신 분들께 고마움을 표시 함.

Prepared by 총무 최광휘(76)

Calendar of Events SNUCMAA of NA

2014	July 1	Inauguration Day
	September 13	1st Board of Directors Meeting
	November 22	Annual Ball
		1st Delegate Meeting
		5th Sigetop Moonjip Distribution
2015	March 14	2nd Board of Directors Meeting
	March 31	Photo Contest Deadline
	June 3	Golf Tournament
	June 4-7	Annual Convention
		2nd Delegate Meeting
		40th Sigetop Anniversary
		Green Project Forum
		President Forum
		New Directory Distribution
	July 1	Inauguration Day

제2차 통합 이사회/대의원회 초록

일시: 2014년 6월 21일
 서부 4시,
 동부 7시

장소: JJ Grand Hotel
 Double Tree Hotel

서부 참석자: 김태웅(63)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이창우(71) 전경배(75) 최광휘(76)
 동부 참석자:



노용면(55) 이만택(58) 김병석(59) 이희경(61) 최준희(64) 허선행(64) 이명희(66) 최영자(66) 강유구(71) 강창홍(71) 문대욱(73) 서인석(73) 한민우(75) 이명호(81) 이선희(81) 심인보(83)

Proxy:

김용식(55) 정구영(57) 황현상(61) 송영두(62) 이흥빈(63) 추재욱(63) 권정덕(64) 김태환(64) 최순채(66) 서윤석(68) 이건일(68) 엄규동(69) 조영갑(70) 김유식(71) 강태수(71) 조세진(71) 김치갑(79) 백승원(79) 이영인(86) 안상훈(94)

1. 성원 점검후 서부 오후 4시, 동부 오후 7시, 김성환 회장이 개회를 선언함.
2. 2013-2014 제1차 이사회 및 제1차 대의원회초록을 수정없이 동의와 재청을 통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3. 재무보고 (고용규 재무): 작년 이월금액 \$183,000에 31차 학술대회 net income \$44,505.43을 더해 5월 30일 현재 잔액은 \$241,000임. \$2,000이상 도네이슨 하신분: 강신호 명예회장 10,000, 박용현 서울의대동창회장 3,000, 김성환 회장 10,000, 김일영 2,600.

Committee 보고:

- Scholarship Committee (서인석 위원장): 북미주 서울의대 동창회 장학금 5명, 김태웅(63) 장학금 2명을 선정; 5월 17일 제1차 대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정됨. \$15,000을 모교에 송금예정임, 7월 1일부터 회장에 취임할 예정으로 후임을 선정할 예정임.
 - Fund management Committee (이명희 위원장): \$300,000을 기준으로 지난 10-15년간 큰 변화가없음. 10년후면 fund 액수가 늘것으로 생각하고 서부에서 fund management 하실분이 나올때까지 동부에서 계속 책임지고 담당하기로 결정함.
 - Publication Committee (김병석 위원장): 시계탑 문집 5호 표지는 김서식(62)동문에게 의뢰함. 시계탑 출간 40주년 기념행사는 2015년 6월 학술대회때 겹쳐서하기로 결정함. 6월 30일로 임기를 마칠 예정임. 김성환 회장이 서윤석(68)동문의 의사를 타진함. 이원택(71)동문이 앞으로 일년간 출판위원장/시계탑 편집장을 맡기로 하였음.
 - Nominating Committee (김일영 위원장): 금년 이임 예정인 10명의 이사중 8명을 유임, 2명의 새로운 이사를 추천함.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내년 회장후보를 아직 찾지 못했음을 보고함.
 - Charity Committee (최영자 위원장): 그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 동문들과 회장님께 감사 표시함. 뉴욕만이 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charity committee의 도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함. 현재 재정상 CoCo를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함.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서부에서도 charity를 하나 pick up할 예정임.
 - Scientific Committee (강유구 위원장): 김성환 회장이 제31차 학술대회의 CME Credit를 쉽게 해결해준 강유구 위원장께 감사를 드림. 2014-2015년에서도 계속 Scientific committee 위원장을 맡게 됨을 공표함.
- 이번 학술대회에서(31차) 15명이 speaker로 수고 해주셨고 내용도 아주 좋았다고 보고함. 2 명의 연사가 한국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불참한 관계로 서인석 차기 회장과 강유구 동문이 대신 하였음.
-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CME certificate 모두 받았음.
- 총 \$1,700을 사용, 한 명당 \$30이 소요됨. 예전에 \$3000을 낸것에 비교해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아주 효율적이었음. Jamie 김이 report를 어제 저녁까지 끝낸것에 대해 고마움 표시함.
- By Law committee (노용면 위원장): 김성환 회장이 서울의대를 입학은 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은분들에 대해서 서울의대 준회원 자격을 주자는 안이 지난 제1차 대의원회에서 상정되었음을 보고함.
- 앞으로 동창회 회원수가 점점 줄고, 특히 80년 졸업 이후 동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을때 그것을 보충하고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준회원의 필요와 당위성을 강조함. 이만택 Advisory committee 위원장이 찬성 발언을 함.
- Green Project Committee (이영인 위원장): 서면보고; 현재 Green Project가 모교 학생들에게 치우쳐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 이민온 젊은 동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지난 4월 13일 모교에서 130명의 의대생을 상대로 "Daily Academic and Clinical Activities in US" 의 토픽을 가지고 강연을 함.

New Business:

- Current Status of Stomach Cancer among Korean-Americans: 1962 졸업 위싱턴주에 사는 박찬형 동문을 주축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동포들의 위암치료 결과가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보다 좋지 않음을 지적. 동창회에서 Ad Hoc committee를 만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위암치료를 위해 조사하기를 원함. Ad Hoc committee는 주로 gastroenterologist를 위주로 2명을 고르고, 서인석 신임회장이 committee 멤버가 결정되면, 추후 발표하기로 결정함.
 - Directory 출간: Directory 발간을 위해 서인석 차기회장이 문대욱 동문에게 chair를 부탁함. 문대욱 회장때부터 지난 3년간 준비를 해와서, 현재 data가 많이 적립되어있음. Fund raising을 위해 많은 동문들의 광고참여를 적극 추천하기를 원함.
 - 31차 학술 대회의 문제점: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석안했음. 80년후 졸업한 동문이 전체 동문의 10%가 되는데 거의 동창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있음. 그들을 어떻게 끌어들이수 있을가가 커다란 연구과제임.
- 동창회 개회 장소에 따라 참석자의 인원 구성이 변하는데, 교류가 어려움을 절실히 느낌.
- 참석한 모든 이사 및 대위원들께 감사인사를 끝으로 7시 15분(동부 10시 15분)에 통합 이사회/대의원회와 신 구회장 이취임식을 마침.

Prepared by 총무 최광휘(76)

남가주 지부, 선후배의 밤 여름 행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남가주 지부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선후배 친선의 밤' 이 금년에는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주거지에 관계없이 서울의대 동창회원이면 누구나 참석해 주십시오.

또한 '축제' 전에 골프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합인가격 \$50에 모시고 있사오니 각자 또는 조를 짜서 Old Ranch Country Club에 직접 예약하시면 됩니다.

일시: 2014년 8월 27일 (수) 오후 5시 - 8시30분
장소: Old Ranch Country Club at Seal Beach / 3901 Lampson Ave, Seal Beach,
전화: (562) 596-4425 웹사이트: www.oldranch.com
참가비: 무료 남가주 동창회장 최광휘(76) 드림

시계탑 편집장에 이원택(71)동문

지난 6월 21일 열린 이사회 겸 대의원회에서 10년간 시계탑 편집장으로 수고하신 김병석(59)동문의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여 현재 편집위원인 이원택(71)동문이 2015년 7월까지 일년간 편집장 업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김병석(59) 동문, 뉴욕시 올해의 자랑스런 의사로 선정

지난 10년간 본보 편집장으로 수고하였던 김병석(59) 동문이 뉴욕시 보건 병원 공사가 선정하는 '올해의 자랑스런 의사'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선정됐다.

11개 대형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보건병원공사는 매년 '의사의 날'을 기념해 뉴욕에서 자랑스런 의사를 한 사람씩 선정해 표창하고 있는데 김동문은 지난 40여년간 코니 아일랜드 병원에서 일하며 의학분야의 탁월한 지식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한 것이다. 특히 꾸준히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어려움 없이 미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동문은 1964년 도미 로체스터 제너럴 병원에서 인턴, NYU 벨뷰 메디컬 센터에서 수련의를 마친뒤 코니아일랜드 병원에서 40여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한인타운인 플러싱에서 개인진료실을 운영하며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왔다. 그동안 뉴욕한인회의 '자랑스런 한국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국악협회 미동부지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미주동창회 신입 이사 명단

2012-2015: 채규철(59) 이희경(61) 김택수(63) 추재욱(63) 허선영(64) 최준희(64) 최순채(66) 김홍서(69) 이성준(70) 최광휘(76) 2013-2016: 이만택(58) 정정수(62) 송영두(62) 이흥빈(63) 한기현(63) 권정덕(64) 문대욱(73) 심완섭(73) 한민우(75) 백승원(79) 2014-2017: 김태웅(63) 강창홍(71) 김성환(71) 김일영(71) 조세진(71) 이원택(71) 오용호(72) 고용규(73) 전경배(75) 김동훈(77)

장학위원회, 김태웅 장학금 등 7명에게 장학금 수여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장학위원회에서 모교 학생 7명을 선정 아래와 같이 동창회 장학금과 김태웅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김태웅(63) 장학금: 허근영(1년), 신준성(4년)에게 2,500씩, 동창회 장학금은 권순일(4년), 안빈(4년) 박평강(4년), 김진아(4년) 등에게 각 2,000씩 수여했다.

후학들을 위한 특별장학금을 설정하여 주신 김태웅(63)동문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곽승용(71) 동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대뉴욕지부 회장에 선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대뉴욕지부 회장에 곽승용(71) 동문이 선출됐다. 곽 동문은 미주동창회 Office Management를 맡아 수년 동안 수고해 왔으며, 금년 Annual Ball 공동개회 등 미주동창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기대된다.

정진우(72) 동문,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발간

뉴욕 후러싱에서 비노기과를 개업하고 있는 정진우(72) 동문이 투박하지만 간결하고 담담하게 수채화를 그리듯 어머니에 대한 애끓는 사랑과 추억을 그린 자서전인 책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를 발간했다.



장석춘(58) 동문 별세

아이오와에서 정신과 개업을 하다 은퇴하여 라스베가스에서 생활을 하던 장석춘(58)동문께서 오랜 투병 끝에 지난 5월 23일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하셨습니다. - 임영신(58)

2014 Annual Ball 공고

2014년 미주동창회 Annual Ball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대뉴욕지부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분께는 매 5년마다 발행되는 '시계탑 문집' 제5호를 우선적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외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부사진, 동기 단체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4년 11월 22일 (토) 6시30분

장소: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ew Jerse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수석부회장 한민우(75)
회장 서인석(73)



강원도 원주에서 일반외과를 개업하고 있는 계기식 동문(아래 왼쪽에서 두번째) 부부가 아들의 졸업식 참석차 도미. 72년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Green Project 모임후 보스톤 MGH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Dr. 은용(2014 졸업, 뒷줄 맨 오른쪽)과 여름학기 연수중인 모교 4학년생 4명과 함께.

시계탑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6월 21일 6시에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Double Tree Hotel에서 편집 모임이 있었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의 대의원회의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전에 편집회의를 마치고 대의원-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기고된 원고가 전혀 없어 지난회에 들어온 원고를 편집한 후에 다음 사항들을 토의하였다.

1. 시계탑 문집 5호의 원고들은 거의 확보 되었으며 아직까지 답이 없는 동문들은 동창회 사무실의 Mrs. Kim이 한번 더 연락하기로 했다.
2. 모금된 문집기금은 약 \$7,000이나 5년전 4호 발행경험으로 보아 우송료까지 계산하면 약 만오천불 정도 소요되어 모금은 계속하기로 했다.
3. 시계탑 40주년 기념행사는 2015년 6월 32차 학술대회때 하기로 했으며 문집도 기념행사에 맞추어 출판하기로 했다.
4. 차기 출판위원장은 편집모임에서 결정하지 못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했는데 남가주에 있는 이원택 편집위원이 일년 동안 맡기로 결정되었다.

편집모임을 마친후 전원 이사회에 참석했다. - 편집위원장 김병석(59)

Community Outreach Ad-Hoc Committee를 시작하며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150만명의 한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각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 가정문제, 청소년 문제, 사회적 문제에 당면해 있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논할지 몰라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계탑 6면에 실린 박찬형(62) 동문의 원고에 설명되어 있듯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리 한인들은 훨씬 더 많은 위압, 간압, 간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나 보험회사들의 관심을 얻으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제1차 대의원회에서 임시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의과과정 밟으면서, 그리고 의사생활을 하는 동안, 동문들의 가슴 속에는 문득 문득 상기된 사명감은 조금씩 분명해졌을 줄 압니다. 동료인간들의 고통을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두뇌와 기술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큰 값어치가 부여될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은 물론이고, 한인 청소년 선도, 가정교육 계몽, 등등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은 물론, 협조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Community Outreach 위원장 이승호 (79)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회장 서인석 (73)

제1회 Community Outreach Project 모집 공고

목적: 미주한인들이 미국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특정질환(심혈관계 질환, 위암, 간암, 간염 등)의 발병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참신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모집하려 합니다.

Project 연구원 자격 및 연구비:

- A.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한 자
- B. \$3,000 ~ \$5,000 / Project, 총 3 Project 이내

심사 및 의결

- A. 신청서는 동창회 사무실에 상비되어 있음.
- B. Community Outreach Committee에서 심사 및 추천함
- C. 이사회, 대의원회 혹은 집행위원회에서 표결 및 승인함.

Min Woo Han, M.D.

1st Vice President

Seung Ho Lee, M.D.

Community Outreach Committee

SNUCMAA OF NA /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nuclma@yahoo.com / (516) 365-5500, (516) 365-5501(fax)



인상파의 거장 모네

인상파의 紀元: Origin of Impressionism

1860년대 후반 파리의 畫壇에 Claude Monet와 그와 의기 상통하는 다수의 유망주 화가들이 보수적인 Academie des Beaux-Arts로부터 연례 Salon de Paris 전시회 출품을 거절당하는 변고가 생긴다. 이들 낙방거사들이 어느 무명 Salon에 집결하여 그들 나름의 예술관과 율분을 토로하며 실의의 세월을 보내다가 1873년 후반에 Monet, Pierre Auguste Renoir, Camille Pissarro, Alfred Sisley 등이 “Cooperative and Anonymous Association of Painters, Sculptors, and Engravers”를 결성하여 이듬해 1874년 4월에 그들만의 독립적인 첫 전시회를 시도했는데, 예상 밖으로 관람객들의 열성적 호응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난공불락의 보수적 전통 화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화가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화폭의 자연 대상 앞에서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상/감성을 색갈과 빛의 상호작용과 명암 효과로 분석/표현하는 새로운 화법의 추구정신 Impressionism의 開基가 되었던 것이다. Impressionism의 어원은 그때 전시된 그림들 중에 모네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의 고향 Le Havre항 부두 풍경을 그린 작품의 畫題가 Impression, soleil levant (Impression, Sunrise) 였던 것에 착안한 동호인들이 자기네의 화풍을 집약하는 대명사로써 합당한 것으로 합의하여 채택한 것이었다. 같은 무렵에 미술 평론가 Louis Leroy의 review 기사가 저명한 전문지에 게재 됐는데 그는 이 전시회를 비하하는 의도로 “L'Exposition des Impressionnistes”라 요약 했지만 결과는 역으로 Impressionism의 정체와 전도를 확고히 해주는 효과를 불러왔을 뿐이었다.

출생, 소년기

1940년 11월 14일 파리에서 식품가게 상인 Claude Adolphe Monet와 Louise Justine Aubre Monet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고 다음해 4월에 카톨릭 성당에서 Oscar-Claude라는 이름으로 세례 받고 집에서는 Oscar로 불렸다. 훗날 그는 무신론자가 되고 작품 서명도 Claude Monet로 썼다. 그가 다섯 살이던 1845년에 Monet家は Normandy의 Le Havre로 이주하는데 이 무렵부터 어린 모네는 뛰어난 그림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851년 11세로 Le Havre Art School에 입학했을 때는 charcoal(炭筆) caricature에 능숙하여 이들을 팔아서 성업을 이루어 근방에 널리 알려졌다. 어느날 Normandy 해변에서 만난 Eugene Boudin이 모네의 첫번째 중요한 mentor가 되어서 oil paints 사용법과, “en plein air” (outdoor) painting 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1857년 1월, 성악가였던 어머니 Louise의 사망으로 16살 모네는 학교를 중퇴하고 슬하 자식이 없이 미망인이 된 aunt Marie Jeanne Lecadre 집으로 살게 된다.

Paris, London, Zaandam; 방황, 탐구, 시련의 청장년 시절

Louvre 미술관을 보러 파리로 간 모네는 화가들이 마스터피스들을 copy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자신도 곧바로 휴대하고 있던 화구를 창가로 가져가서 보이는 작품들을 그리기 시작 하

이 회 경(61, 대뉴욕)

였다. 그는 파리에 수년을 머물며 Edouard Manet를 비롯한 여러 젊은 화가들을 만나 친구가 되고 인상파 동인이 된다.

1861년, 모네는 아프리카 알제리에 주둔한 First Regiment of African Light Cavalry에 7년 계약 근무조건으로 입대 하였으나 이듬해인 1862년에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aunt가 손을 써서 퇴역하고 귀국하여 아트 스쿨에 복귀하게 되지만, 고루하고 전통적인 회화기법 수업에 환멸을 느낀 그는 같은 해에 Academy of Charles Gleyre in Paris에 입학한다. 비록 그는 아카데미 학생이었으나 정규 아카데미 강좌는 수강하지 않고 주위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기대로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서 모네는 Pierre-Auguste Renoir, Camille Pissarro, Frederic Bazille 과 Alfred Sisley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함께, 회화의 새로운 접근법을 탐구 하였는데 특히 실외화(en plein air(outdoor) painting)에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빛의 영향/효과를 broken color, cross bar touch, dash and dab 등의 빠른 brushstrokes를 구사하여 표현하는 기법을 시도했는데, 훗날 Impressionism 으로 알려지게 된다.

1865년 그의 장래 아내가 될 Camille Doncieux를 모델로 그린 A painting of Camille(일명 The Woman in the Green Dress)와 하나의 작은 풍경화가 The Salon전에 전시되는 영예를 얻고 난 다음 Camille은 자주 모네의 모델역을 맡게 되고, 임신하여 그들의 첫 아들 Jean을 1867년에 출산한다. 모네와 Camille은 1870년 6월 28일에 결혼하고, 그들 가족은 Franco Prussian 전쟁 발발 직전인 동년 9월에 파리를 떠나 런던과 Zaandam (네델란드)로 피난 다니다가 돌아와서 1871년 12월에 Argenteuil로 이주한다, 이러한 기간중 모네는 여러가지 당시 현대 사회 생활상의 그림을 그렸다. 몇 점의 maritime painting들이 전시회에서 인상하여 고향 Le Havre 시장으로 부터 은상을 받은 이래, 그의 작품 모두를 채권자에게 차압당하게 되는데 다행히 모네의 첫 멘토인 Boudin의 후원자이자 수집가인 Gaudibert가 다시 구입하여 회수해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시기 그들의 삶은 빈곤에 시달려야 했다. 1870년 9월에서 1871년 5월까지 영국에 있을때는 works of John Constable and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를 공부하여 그들의 풍경화가 모네의 혁신적 색채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1871년 봄 모네의 작품들은 Royal Academy 전시 허락을 받지 못한다. 1871년 5월 그는 런던을 떠나 Zaandam, 네델란드로 가서 25폭의 그림을 그린다. 그해 11월 그와 가족은 프랑스로 귀환한다. 1871년 12월부터 1878년까지 그는 파리 근교 Seine 강변에 있는 Argenteuil에 살며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의 일부를 완성한다.

1876년 Camille Monet가 결핵환자가 되고 1878년 3월에 두째 아들 Michel의 분만으로 건강이 악화된다. 그해 여름 그들 가족은 village of Vetheuil로 이주하여 모네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재력 있는 백화점 주인 Ernest Hoschede 家와 한집에 거처하게 된다. 같은 해에 Camille는 자궁암이 병발하여 9월에 사망한다. 그녀의 나이 32세였다. 수개월의 어려운 때를 겪고난 다음 모네는 창작 작업에 돌아와서 19세기에서 그가 그린 가장 값진 그림류에 드는 걸작들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1880년대

초반에 그는 여러 종의 landscapes와 seascapes들을 French countryside를 기록하는 노력이라 생각하고 그렸는데, 이 작업은 series의 pictures에서, 같은 하나의 scene을 여러번씩 그렸는데 이는 changing of light와 passing of the seasons를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모네의 친구 Ernest Hoschede가 파산하여 1878년에 벨기에로 떠나갔다. 1879년 Camille의 사망후, 모네가 계속하여 Vetheuil 집에 살고있는 동안, Alice Hoschede가 모네를 도와 그의 두 아들 Jean과 Michel을 부양하고 그녀는 그 애들을 파리로 데려다가 그녀 자신의 여섯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했다. 그녀의 딸 딸 Blanche는 후에 Jean Monet와 결혼한다. 1880년 봄, Alice Hoschede와 아이들 모두 파리를 떠나 Vetheuil에서 모네와 재합한다. 1883년 4월 인근 마을로 가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한적한 마을 Giverny in Normandy를 발견하고 Monet, Alice Hoschede와 아이들 모두 Vernon을 거쳐, Giverny 집으로 정착한다. 거기에는 나무들이 가꾸어진 큰 정원이 있어 모네는 여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수많은 series의 명화들을 그리게 된다. 별거중이던 Alice의 남편이 타계하자, 1892년 모네는 Alice와 결혼한다.

시초에는, 1883년 5월 모네와 그의 대가족은 집과 그에 딸린 2 에이커의 땅을 세들어 살며 온 가족이 일해서 축사를 painting studio로 확장 개조하고 정원을 만들어 갔다. 집은 도로에 가까워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좋고 주위의 경관이 모네의 야외 그림 작업에 적절한 동기를 제공했다. 한편으로 모네의 재운도 호전되기 시작하는데 그의 畫商 Paul Durand Ruel이 취급하는 모네의 그림들이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890년 11월에 모네는 세들어 살고 있는 집과 변두리 건물들과 그의 정원 땅을 사 들일수 있을만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1890년대에 모네는 하나의 greenhouse와 a second studio를 건립하였다. 모네는 추가로 water meadow가 있는 땅을 매입했다.

Giverny House:

마지막 정착, 풍요와 성취의 晩年

1893년 그는 lily ponds를 포함하는 방대한 landscaping project를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훗날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의 주제가 될 품목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고유의 White water lilies들은 남미와 이집트로부터 수입한 재배 변종들과 인접하게

심어서, 형형색색의 yellow, blue and white lilies를 포함하는 변하는 색깔의 화단을 조성하고 1899년 그는 water lilies 그리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vertical view의 Japanese bridge를 중심으로 그렸고, 이후에는 series of large-scale paintings로 남은 20년 생애를 이 alternating light and mirror like reflections을 지닌 풍광을 지속적으로 “새가 노래하듯 즐겨 그렸다. 1910년대에 이르러 모네는 완전히 새로운, 유동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대답하고 조심성 없어 보이는 style of painting을 그려 그의 water lily pond 화는 the point of departure for an almost abstract art가 된다. 어떤 평론은 그의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 손실과의 연관을 제시하는데 가능성 있는 사실일 수 있다.

死亡

모네는 1926년 12월 5일 폐암으로 사망한다. 향년 86세였다 그는 Giverny church cemetery에 묻혔는데 고인의 소망에 따라 장례식은 간결하였고 약 50명의 조객만이 참여하였다. 그의 집과 정원, Water lily pond는 그의 두째 아들 Michel이 상속 받아 1966년 French Academy of Fine Arts에 기증하였다.

The Academy는 Fondation Claude Monet에 의뢰하여, the house and gardens을 수리하여 1980에 일반 관람용으로 개관 하여, the Museum of Impressionism Giverny와 함께 전세계로부터 찾아오는 여행객의 major attractions in Giverny 가 되었다.

Epilogue

근대 繪畫史에서 가장 장구하게 빛나는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인상파 화풍은 두 세기를 거쳐 21세기 오늘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구사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주목과 애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생성과 발전에 중심역이었던 모네의 半世紀를 초월하는 긴 그림 활동에서 一事不亂의 투철한 의지, 과감한 기법과 예리한 투시력으로 성취한 방대한 작품과 일화들은 斯界에서 가장 빈번히 회자되고 있다.

초기의 인상파 화가들의 집단적 열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산만해져서 제 5, 6차 전시회는 회원들간의 異見으로 유산되고, 10여년 후에는 회원들이 각기 제 갈길로 분산 된다. Monet, Renoir, Pissarro가 비교적 오래도록 함께 했고 Renoir와 Monet는 오랜 세월 동안 친숙한 친구로 많은 그림여행도 함께 하였다.

시계탑 편집을 맡으며



앞으로 일년간 ‘시계탑’의 bell-boy 노릇을 할 이원택입니다. 역대 편집장님들의 노고로 불혹(不惑)의 반석(盤石)에 오른 우리의 ‘금지탑(金字塔)’을 꾸밈없이 펴 나가야 할텐데... 어께가 무겁습니다.

모든 동창회보의 귀감(龜鑑)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시계탑은 1,200여 서울의대 미주동창들의 소통과 대변지로서 우리의 끈끈한 모교(母校)심을 엮어주는 가교(架橋) 역할을

을 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힘차게 노를 저어 인생항로를 헤쳐 나가야 됩니다. 세대 교체도 해야겠고 첨단 항해술도 도입해야 되겠지요.

그동안 편집위원으로 있던 서인석, 이원택 동문이 승진(?)하는 통에 서량(69) 동문만 홀로 편집위원으로 남게되어 김명원(68), 서운석(68), 나두섭(73), 이선희(81) 동문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서울의대동창회 회보’측과의 유대를 더 강화하고자 모교에서 발행하는 동창회보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보내드리기로 하였고 또 양측 편집장들이 합심하여 각각 ‘모교소식’ ‘미주소식’란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4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계탑’을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바뀌어가는 세태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천천히’ 변화를 모색해 볼까 합니다. 시계탑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wonlee0120@gmail.com으로 연락주시지요.

이원택(71, 남가주)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필자를 포함한 우리 미주동포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병이 현대 의학으로 정복이 될 수 있는데 (즉, 대부분이 그 병을 극복하고 살아 남을 수 있는데) 이곳 미국에서는 안된다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더욱 답답한 것은 대부분 우리 교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병은 한국인에게 희귀 병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 빈도에서 치명적인 암중에서 1, 2등을 다투는 병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거의 같은 높은 발병 빈도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미국 암 협회 주관으로 7 명의 미국 학자(한국 학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음)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동양 5대 민족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을 미국 백인과 비교하여 역학 조사한 결과 한국인에게 이 암이 유별나게(singularly) 그리고 월등히(by far) 그 발병 빈도와 사망률이 미국인에 비하여 높으며, 다른 4대 민족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보다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학자가 시카고 지역 한국인을 미국인과 비교 연구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 암은 미국인에게 희귀병이기 때문에, 즉 미국의 14대 빈발 암에 들지 않아 그 사망률이 높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암은 위암입니다. 이외에도 또 한가지 병(간염/간암: 간암은 대부분 간염에서 옵니다)도 비슷하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위암만큼 분통이 터질 정도는 아닙니다. 우선 위암부터 살펴 보지요. 먼저, 발병률을 봅시다. (하기 도표 참조).

위암 발병률 (per 100k population)

	남자	여자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9.5	3.8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69.6	26.8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54.6	27.5

남자 발병률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발병률(인구 10만명당 매년 54.6명)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발병률(69.6)은 통계 오차 범위 내이고 여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발병률(27.5)은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발병률(26.8) 보다 많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다고 봅니다.

생존율은 즉 일단 발병을 했다면 5년간 생존할 확률(%)이 얼마인가?

아래 표에 3나라 정부의 최신 공식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a)	한국(b)	일본(c)
연도	2003-2009	2007-2011	2003-2005
모든 암	68.0	66.3	58.6
전립선암	100	92.0	93.8
위 암	29.0	69.4	63.3
간 암	18.0	28.6	27.9

- a) 미국정부, per SEER/NCI (published by ACS, Jan. 7, 2014)
- b) 한국정부, released by Korean Central Cancer Registry/Korean Government, Dec. 26, 2013.
- c) 일본정부, released by Center for Cancer Control and Information Services, National Cancer Center Monitoring of Cancer Incidence in Japan - Survival 2003-2005, report 2013.

주의할점은 통계 연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미국은 2003-2009인데, 한국은 그 후, 2007-2011이며, 일본은 오히려 더 전(2003-2005)인데도 미국보다(29%) 훨씬 많이(63.3%) 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보면, 일본의 위내시경 technology의 창시 개발(30-40년 전에 시작했음)과 일본 의학자의 초창기 pioneering 노력에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암을 근치 가능한 초기에 발견 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후 한국 의학자들 역시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일본 의학계

소수 민족인 재미 한인동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病

와 협력하면서, 경쟁하여 지금은 막상 막히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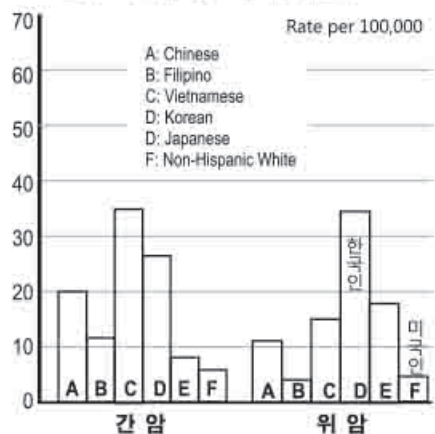
상기 도표에서 미국의 생존율(29)과 맞먹을 한국의 생존율은 도표에 나와 있는 한국 생존율(69.4)과 일본생존율(63.3)의 중간치(66.4) 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암뿐만 아니라 무슨 병이든 2가지 빈도를 아는 것이 중요 하지요: 그 병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 즉, 발병율과, 일단 발병 후에 그 병으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즉, 생존율)입니다. 첫번째 도표는 발병율이고, 그 다음 도표는 생존율입니다. 이 2를 연계해서 위암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은 발병율이 높지만 생존율이 높아서 그런 대로 수용해졌고,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은 생존율이 낮지만 발병율도 낮아서 그런 대로 납득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발병율은 높는데 생존율은 낮으니(미국 관용어로, double jeopardy) 결국 사망자 수가 월등히 높아짐으로, 이를 받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3번째 도표에 사망자 수가 어떻게 큰 차가 나는지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미국의 암 치료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 (2번째 도표, 모든 암 합친 생존율: 미국 68%, 한국 66.3%, 일본 58.6%) 특히, 전립선암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혹시 한국인은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서, 미국에 살아도 위암 사망률이 낮지 않을까? 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기 도표로도 알 수 있지만, 상기 미국 정부(per SEER/NCI) 자료를 더 자세히 보면 간접적으로 나와 있고, 특기할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30-40년 전에는 현재 미국과 같이 사망률이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DNA 돌연변이가 일어나도 국민 전체가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사망자 수

캘리포니아에 사는 5대 아시아 민족



From McCracken, N. et al. CA Cancer J Clin 2007;57:190-205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이해도, 납득도 안됩니다. 미국같이 첨단 의학이 참관하여, 많은 새 치료법이 개발이 되고 세계적으로 보급을 하는 나라에서 이 말도 당연히 맞습니다. 여기에 2가지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학 연구 개발 활동에서 물론 아시아가 구미보다, 그리고 특히 한국은 일본보다 나후 되었었고 후발이었으나, 한국은 지난 30-40여 년간의 처절하고 거의 필사적인 경쟁(의사, 의학자 간의 경쟁, 병원간의 경쟁, 한국과 일본의 경쟁)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이 모든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또 한가지는, 위암이 미국에서 희귀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전문으로

연구 치료하려는 의사/의학자가 미국에는 아주 드물고 그 열기도 아주 낮습니다. 심지어 미국 의사에게서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위암을 전공하면 밥 벌어 먹을 수도 없다" 모든 것이 수입 위주인 나라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필자가 2 나라의 철저한 경험으로 터득 한 것입니다. (미국 의과 대학의 혈액종양 내과과장 겸 암 센터장 등 30년, 한국 삼성의료원의 창립 혈액종양 내과 과장 겸 암센터장 7년).

이상은 큰 틀에서 본 이유이고, 더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높은 숙련도와 첨단장비를 겸한 위내시경을 대다수 국민이 매년/격년 받고 있으므로 (전술 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의학자의 노고와 첨단 내시경 개발이 핵심 technology이고, 한국 정부의 지침/독려에도 감사해야 함), 대부분 위암이 근치 가능한 초기에 발견됨으로 그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렇지 않음으로, 많은 위암이 근치 불가능한 말기에 발견됨으로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도 아주 잘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여성에게, 유방암 조기진단 근치를 위하여 유방 X선 촬영을 매년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시하여,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사망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위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하여 위 내시경을 자주 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지요.

위암 이외에, 잠깐 전술 했듯이, 또 한가지 비슷한 문제의 병은 간염/간암입니다. 간염만 있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간염(간염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동양인에게는 B형 간염)이 걸리면 그 후 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20%나 될 수 있고, 간암 환자의 70%가 간염에 의하여 유발이 되니, 이 간암의 비극을 막으려면 간염부터 막아야 되겠지요. 마침, 3 번째 도표에 위암과 대조되어 잘 나와 있습니다. 위암에 있어서는 한국인이 단연 타 인종의 근접조차 불허하는 1등의 불명예를 차지하였으나, 간암에 있어서는 1등까지 차지하지 못하여 다행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나 1등을 차지한 베트남 사람이 많이 근접 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2 가지 병을 다 극복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극복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찌서 내가 왜 희생 당해야 하는지 알면서 당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한인 교포가 어찌서 자기가 사망해야 하는지 모르고 사망하니(사망 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Minority Discrimination도 되겠습니다.

附錄: 이 위암 문제에 관한 노력

- 가) 2012/2/11 서울대학교병원 후원으로 "재미 한인교포에게 꼭 필요한 건강정보" 라는 주제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본인이 presentation 했음.
- 나) 2012/7/7. 재미한인인사회 로스앤젤레스 연례학술대회에서 이 문제를 본인이 조직한 심포지움 Health Disparity Forum" 을 통해 7명의 의학과자와 토의 했음.
- 다) 현재 진행되는 3 가지 노력,
 - 1) 미국 임상 암학회(ASCO: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 본인이 꾸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소수 민족의 높은 사망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흑인의 유방암,

히스패닉의 전립선암 등), 여기 회장과 staff들이 드디어 이 위암 문제도 곧 본인이 주축자로 참가하여, 다루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 한 위암의 advocacy group (Debbies Dream Foundation: Curing Stomach Cancer)이 지난 2월27일, 워싱턴 DC의 Capitol Hill에서 위암 치료연구에, 연구비 지원을 늘리라고, 보건복지 위 소속 Federal Representatives/Senators에게 lobby/presentation을 하였습니다. 본인도 초청 받았고, 상기 2 번째 도표를 이 그룹 회장이 회사를 할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거의 다 백인 위암환자로 구성-한국환자는 보지 못했음, Minority discrimination의 확실한 base가 되겠음, not necessarily race-based discrimination)

3) 특기할 것은 우리 시애틀 지역에서 하기 여러 집단과 여러 의료인들이 단합하여, 움직이기 시작 한다는 사실입니다(Cornerstone clinic, KAHPA-Korean American Health Professional Assoc.,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Univ., Fred Hutchinson Cancer Center, Private Gastroenterology Practice).

이 운동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아틀란타 등등으로 확산되고, 우리 동창회가 적극 지원, 결국 재미한인 의사회의 주 업무가 되면,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위내시경도 유방 x선 촬영같이 매년 보험에 커버되게 할수만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다.

라) 상기 3 가지 노력이 언제 결실이 될지 모르고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으니, 지금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위 내시경을, 증세가 없을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증세가 있어도 해야 하지만 완치 가능성을 이미 노쳤을수 있음: 유방 X-ray 매년 하는것과 같음) - 미국 몇몇 큰 도시에는 대부분 위내시경을 많이 하는 한국인 의사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국 의사라도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2세 한인의 사는 도움이 안됩니다. 참 웃지 못할 경험은, 미국의 명문 의과대학을 나온 미국의사에게 의논을 하면은 면박만 당하고 나올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정을 모르니까요. (무조건 안 해 줍니다, 강제로 해달라면,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평균 \$3,500이 듭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한국 건강검진 하는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만 하고 오는것입니다. 왕복 비행기 값이 더 들지만, 위내시경 비용은 훨씬 덜 듭니다(\$300-400 정도), 이왕 한국에 나가면 간 초음파도 하십시오. 건강검진에서 하는 다른 여러 검사들은 여기서도 다 잘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실려면 그리고 여기 보험이 있으면 여기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응급사항이 일어나면, 과거 검사 자료가 즉시 필요 하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 한 모든 검사결과와는 반듯이 영문으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마) 또 하나 아쉬운 것은 한국의 의료계가 이 위암을 중점으로 (또 한가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월등히 잘 하는 간염/간암/생체간이식도 포함 하여) 미국에 진출하면, 많은 한인 교포를 살리면서, 동시에 한국의 선진 의료를 미국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그 여파로 많고 좋은 실리를 거둘 수 있을터인데-. 한국에서 무엇이던지 더 잘 한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한국의 의료계,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이 중심이 되어 본인 및 미주협력 기관과 힘을 합쳐 위의 (다)에 서술된 "현재 진행되는 3 가지 노력"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인 교포의 많은 생명을 살리면서 동시에 우리 병원과 한국의료계의 세계적인 진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31차 미주동창회 학술대회 보고

CME 寶庫

강유구(71)



제 31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의 학술대회가 시애틀에서 Skagway를 왕복하는 Celebrity Solstice 유람선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람선에서 개최된 관계로 여러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에 걸친 여행은 빈틈없이 준비된 학술회, 교양강좌, 친목모임으로 모든 동창 부부들께서 화목을 돌우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여행이라는 부담으로 참석하신 동창님들은 전례에 비해서는 적은 수였지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강의하시기를 자원하셔서 학술회 준비에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모든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학술회에 참여하셔서 학술회의는 더욱 생기가 들었습니다.

Continuing Medical Education은 Thomas Jefferson University에서 후원을 받았으며 CME 증명서는 인터넷에 의하여 쉽게 발부가 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동창회장 Dr. 김성환의 환영인사와 학술위원장 강유구 교수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첫 연사는 Dr. 서인석 이었으며(73, Director of Nuclear Medicine,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Brooklyn, NY) Personalized(Customized) Medicine을 강의 하셨습니다. 서인석 동문은 현대의 학이 대량 생산과 수가 절약을 강조하는 일관 작업을 채택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러한 Protocol에 치중하는 환자 진료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환자 개개인의 진단에 맞는 치료는 좋은 효과를 가져오며 환자, 의사, 행정 책임자와 건강 보험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된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Dr. 조세진(71, Professor Emeritus of Pediatrics,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Medicine, Wichita, KS)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DNA Sequencing이 임상에 응용되는 점을 강의 하셨습니다. 이 강의는 Personalized Medicine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DNA Sequencing은 Sanger Sequencing(1977)과 모세관 방법(1998)에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2005)으로 발전되며, 현재 60 이상의 암세포에 관여하는 20,000 유전자가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전자의 구성이 계속 밝혀지면 환자 개개인의 발병의 예측, 질병예방과 특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Hopkins Medical Institute에서 Post doc 과정을 하시는 Dr. 안영준(93, Associate Professor of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최근의 최장

암의 외과적 치료 방법을 발표 하셨습니다.

취장암은 가장 악성 암 중의 하나이며 5년 생존율이 5%이며 평균 수명이 1년이 못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래의 Celiac axis와 Superior mesenteric artery를 취장암과 함께 절제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현재는 Superior mesenteric artery를 침범하는 취장암은 절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가 불가능한 취장암은 Irreversible electroporation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짧은 고전압 파도를 사용하여 암 조직의 세포 투과성을 증가시켜 암을 치료하는 Irreversible electroporation이 임상에 도입 되었습니다.

임종식 박사님(57, Professor Emeritus of Surgery, Uniformed Services Univ. of the Health Science, Bethesda, MD) 미국 내 흑인들의 전립선암에 대해 강의를 하기로 약속 하셨지만, 갑자기 박사님 가족 분의 건강 문제로



학술대회에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동문을 대신하여 빕니다.

임종식 박사님 대신하여 강유구 교수가(71, Professor of Anest-hesi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hila, PA) 혈액 수혈없이 진행되는 외과 수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1980년 중반에 HIV와 C형 간염이 발견 되면서 많은 환자나 의사들이 혈액 수혈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데는 최근 도입된 Minimally invasive surgery가 (Laparoscopy, Thora-coscopy, Robotic Procedure)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들은 수술이 시작한 뒤에 환자의 피를 뽑았다가 수술 후에 수혈하는 Isovolemic Hemodiluti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교수는 수혈을 절대 반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간이식 수술을 수혈없이 성공적으로 마친 예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박찬형 박사께서는(62, Professor Emeritus of Internal Medicine, Sungkyun kwan University, Seoul, Korea) 미국과 아시아 국가(한국과 일본) 사이에 위암 치료 결과의 차이를 발표 하셨습니다. 5년 생존율은 미국이 29%이며 한국과 일본은 69% 이어서 한국과 일본이 위암 치료에 미국 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흥미있는 사실은 캘리포니아와 시카고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생존율은 미국시민의 생존율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교수님은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위

암 생존율이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사실은 Human Right에 연관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 하셨으며 암 연구 학술회들과 미국 하원의원들의 도움을 촉구 하셨습니다.

최용성 박사님은(61, Distinguished Investigator, Ochsner Clinic Foundation, New Orleans, LA) 지난 50년간의 항암 치료는 많은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만 30%의 환자에서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많은 환자가 저항력이 떨어져서 치료하기 힘든 감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최 동문은 인간 입과 선 입을 연구할 수 있는 세포 조직을 개발 하셨습니다. 최 동문의 연구는 장래 암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진 박사는 한국의 전박사교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오병희 박사(77, Professor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and CEO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대신하여 인간의 유전자의 연구를 통하여 전 세계 인구의 이동사항을 많은 세계지도를 사용하여 자세히 설명 하셨습니다.

Dr. 전경배는(75, Pediatrics, Whittier Hospital Medicine Center, Whittier, CA) 소아과에서 흔히 보는 자폐증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 하셨습니다. 자폐증의 진단은 3세 이전에 언어 개발에 지장이 있던지 비정상적인 사회교류로서 이루어집니다. 자폐증은 2살 전에도 진단 될 수 있으며 Universal Screening이 조기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태형 교수께서는(63, Professor Emeritus,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tlanta, GA) 한국과 미국의 의료 행정의 차이를 보여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단일 건강 보험제도로 전 국민의 의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7%의 국민은 정부에서 보험수가를 전담하는 반면에 93%의 국민은 개인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개인의 수입과 재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1억 6천만 명이 개인 건강보험으로 5천 6백만 명은 Medicaid로, 4천만 명은 Medicare로 의료수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6천만 명의 인구가 건강보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택된 Affordable Care Act은 미국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Medicaid가 더욱 확장되며 개인 보험제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됩니

다.

정명희(71, Professor of Pharma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교수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독성이 있는 8-hydroxydeoxyguanosine으로 부터 염증과 allergy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 하셨습니다.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8-hydroxydeoxyguanosine과 8-hydroxydeoxyguanosine은 세포 벽을 통과하면서 염증과 allergy를 줄이게 되는데 독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약이 개발되면 염증과 allergy를 치료하는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으로 발표 하셨습니다.

김영태 교수는(71, Professor Emeritus of Orthopedic Surgery,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 목 척추 관절 교정 후에 오는 그 주변 척추 관절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를 발표 하셨습니다.

Anterior Cervical Discotomy and Fusion을 한 뒤에 그 주변 척추 관절의 장애는 23%에서 보였으며 89%의 환자에서 증상없이 5년간 지냈으며 59%의 환자는 15년간 증상 없이 지냈습니다. 이 주변 척추 관절 장애의 위험도는 수술 전의 관절 질환 정도와 척수관이 좁아진 정도에 관련 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Dr. 전희택 교수는(64, Neurology, Northridge Hospital Medical Center, Northridge, CA) 심장마비 후 Endovascular hypothermia를 사용하여 생존율과 두뇌 기능의 회복을 증가시키는 임상연구를 발표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마비 후 15%의 환자가 소생하며 3%의 환자가 두뇌기능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동문의 연구에 의하면 심장마비 후 6시간 이내에 Endovascular hypothermia를 적용하면 50%의 환자가 두뇌기능을 회복하는 혁신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Dr. 김창구는(71, Pathologist, South Bend Medical Foundation, South Bend, IN)최근에 사용되는 결핵진단 방법을 발표 하셨습니다. 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IGRA)는 생체가 어떤 항원에 접촉을 하면 T-lymphocyte에서 interferon gamma를 유출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IGRA는 결핵진단에 정확도가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진단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인구 박사는(71, Professor Emeritus of Surgery, Asan Medical Center, Seoul, Korea)는 한국 전박사교 관계로 학술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된 서인석 동문이 대신 동창회의 장래를 설명 하시면서 사업계획과 자신의 포부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젊은 세대 동문들을 포함하는 동창회 확장을 제일 큰 사업으로 보시며 동창회원 명부 발간과 각종 분과위원회 사업을 적극 지원 하시겠다는 지침을 밝히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학술회는 저의 의사 생활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모든 참가하신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동문들도 동감을 했으리라고 믿으며 내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뉴욕시 근교 뉴저지 티넥에서 갖게 되는 제32차 학술회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non-CME 愉感

이원택(71)

기쁜 마음으로 31차 학술대회 '교양 과목' 연수를 끝마쳤다. 원래 낮에는 CME와 병행으로 조금 학술적인 주제를, 저녁에는 상식 수준의 '지혜로운 담화'를 준비했으나 동문들께서 식사 후에 '잡스러운 담화'를 즐기는 통에 '사랑방 모임(사모회)' 시간을 빌려 써야 했다.

새를 보려면 새와 같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연사로 등단한 최용성(61) 동문은 육중한 목소리와 실감나는 사진들로 철새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다음 타자 이원택(71) 동문은 거금을 들인 소재자를 배포해 가면서까지 〈신화 속의 여인들〉의 나체사진을 합법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미 '사진작가'의 반열에 오른 나두섭(73) 동문의 '사진학' 강의는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웠고, 북미주 서울 의대 자금관리책 John Baek 씨의 '돈 관리'는 동창회 기금이 불경기에도 연리 5% 이상을 유지하는 비결을 피력하였으며 '서울대 갈릴레오' 이홍표(64)동문의 '북쪽 밤하늘'은 별들의 전설을 자신이 직접 탐사해서 확인한 것들이다.

유전학의 대가 조세진(71) 동문이 DNA 추적으로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이며 그들이 빙하시대와 대홍수를 겪으면서 어떻게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나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며, 첫째 날 자기 시간(살)을 깎아 남편에게 할애(먹인)한 존 백씨의 부인 안신영 화백은 나중에 '생활 속의 미술'이란 제목으로 생활미술 및 자신의 작품세계를 보여 주었다.

이번 여행을 주선한 Sun Coast 여행사, Jenny Chun의 부군 Joon Park 씨의 컴퓨터 강의는 실용적인 것을 쉽고 재미있게 얘기해서 1시간을 다 쓰고도 나중에 앵콜 강의까지 해야 했으며



이원택 동문의 '잡자리 파트너'로 알려진 조만철(연세의대 70)군의 〈심리적 은퇴준비〉는 audio 준비가 신중함이 재탕까지 했으나 그의 강산도 사투리와 입기응변의 약기연주로 그런대로 들을만했다.

고용규(73)동문 어부인 고은옥 약사의 바하의 Partia 3번을 예로든 '바이올린 연주법'도 시간이 모자라서 나중에 연속공연을 했는데 특히 싸모님들께서 열정하셨다. 실세회장(71 김성환 동문 부인) 김영애 수필가의 〈나의 수필쓰기〉는 최신작 '만두' '짜장면' '라면' 등을 예로 들면서 글쓰기가 별거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담으로 김현배(72) 동문의 〈사랑의 대화〉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었으나 재치있는 대화로 쓴소리가 귀에 달게 들렸으며 '百聞이不如一行'이란 말을 되새기게 했다. 이어서 이성길(71)동문의 〈활쓰기〉는 기술보다는 정신통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으며 윤기철(71) 동문의 〈사도세자 - 정조〉 이야기는 '역사를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윤기철 동문은 'Capitalism'이란 DVD를 한 보따리 가져와서 틈틈이 보여주었는데 자본주의도 모든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인 것 같았다. 요번 지담중에 관중이 제일 많았던 것이 한국에서 온 김영태(71) 동문의 '시청각능담'과 〈임진왜란〉으로 김동문의 해박한(?) 지식과 유연한 연기는 개그맨과 역사학자를 합친 것 같았다.

Non CME를 맡으면서 혹시나 하고 여분으로 '갈릴레오 Affair', '창조론과 진화론'을 준비해 갔으나 시간이 남기는 커녕 연사를 말머리를 짜느라 인심깨나 잃었다. '그까지' non CME 그날 적당히 때우려고 했다가 큰코다친 격이다. 다음에 말을 동문에게 충고 하건대 non CME도 미리미리 예약을 받아서 행사 전에 완전한 프로그램을 짜고 video-audio-power point 는 한 사람이 책임지고 작동해야 할 것이며 non CME chair나 moderator도 시작 5분 전까지 회의장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



Retreat 선상 학술대회의 뒤안길

이창우(71), 이원택(71)

(1) 야경 (夜景)

2014년 5월 16일, 세 시간여의 지루한 기다림 후에 근 백 명이 12만 톤이 넘는 호화유람선 Celebrity Solstice에 몸을 실었다. 좋으나 싫으나 앞으로 일주일간은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배가 떠나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시애틀은 샌프란시스코 못지않은 미항이다. 창공에는 석양이 투사해서 그려진 배 모양이 어른거리고, 우리들 마음도 환상의 세계로 빠져

들어 갔다.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 처음 만나 는 동문들, '76년 한민입니다', 머리를 못(안) 깎아서 꼭 산적 팔마니같이 생긴 친구가 미끈한 미너를 데리고 나타난다. 때때 같은 너 아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막내, 93년 졸업 안영준 부부의 모습도 보였다.

환영연 때 각자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나이드신 동문들께서 자신들이 이사 다닌 곳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 사모님들이 대신 말해주는 것을 보고 사회자, 최광희(76) 동문이 "나도 십년 후에 저렇게 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 한편 슬프기도 하고, 한편 "마누라한테 잘해주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번 여행에 71년 졸업생이 13명이나 대거 참석한 것은 회장 김성환 동문의 들러리 하려고 그랬다 치더라도 62년 5명, 63년 4명, 64년 4명이 참석한 것은 그분들의 끈끈한 동기애와 변함 없는 학교사랑의 발로이리라. 62년 정정수 동문은 그 연세에도 음담패설이

남자하는 노인장을 과시했고 박찬형 동문은 시애틀에 사는 죄(?)로 배에 행사용 짐을 부치는 등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다.

원찰한 키의 64년 유효명 동문은 콧수염을 깎아 더욱더 세련된 모습으로 '장담' (?) 역할을 수행하셨으며 김태환 동문은 그 나이에 될 더 배우시켰다고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경청하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아마도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느라 지켜봐도 내색 않고 끝까지 버티셨을 것이다. 66년 민발식 동문은 소개 때 발을 들어 올려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excursion 나갔을 때 보니 정말로 '발이 빠른 싸나이'였다.

여흥시간에는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노래가 강하고 미국친구들은 춤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정명희(71) 동문의 '나나노' 뽕짝과 한민우(76) 싸모님의 '배꼽 없는 배꼽춤'이 일미였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어디서 그런 기운이 솟아났는지 남녀노소가 어울려 마구 흔들며 대는 통에 '하다 못해' 영계 측에 속하는 최광희(76) 어부인께서 "나 더 이상 기쁨조 못하겠어!" 하고 퇴장하는 happening도 있

었다. 어떤 이는 cruise 여행은 먹는 여행이라 한다. 특히 Main Dining에서 먹은 steak는 질이 수준급이었고 서비스도 좋았다. 여정 중에 서상철(56) 동문과 Mrs. 전경배(75) 여사의 생신이 끼어 있어 짜배기 cake도 얻어먹었다. 돌아다니면서 Ukulele 연주로 입맛을 돋궈 준 '각설이', 조만철(연세의대 70) 선생의 수고도 무시할 수 없었다.

혹시나 하고 회장단에서 김치와 볶음고추장을 준비했으나 어느새 양식 문화에 혀가 순화되신 동문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통에 공연히 냄새만 풍겼다. 또한, 어렵게 밀반입한 소주도 평평 남아돌아 가서 나중에 태평양 속의 고기들에게 '고스레' 해주고 돌아왔다. 그 동안 우리 동문들의 의식 수준이 많이 '개화'된 탓이리라.

혹자는 cruise 여행을 밀여행이라 한다. 집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밖에 나오면 쪽이 팔려서라도 좀 다정하게 보여야 한다. 서로 기대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하다 보면 사그라지던 정도 다시 살아나는 모양이나 이런 데 와서 꼭 티를 내는 친구들도 있다. 71년 이성길 부부와 73년 서인석 부부는 card room에서 Bridge인지는 몰라도 지름끼리만 희희덕 거리는 '아름답지 못한' 풍경을 보여 주어 '담실'소리를 들기도 했다. 그 이외에도 김현배(72), 나두섭(73), 한민우(76), 김대중(76), 부부들이 너무 밀착여행을 하는 통에 안영준(93) 동문

이 자녀교육상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 버리고 만 것 같다.

한편, finale 비슷하게 돌아본 Victoria의 Butchart Garden에서 장거리 보행이 어려운 조세진(71) 동문을 동기 정인용 동문이 휠체어에 태워 full course로 구경시켜 주는 '아름다운' 풍경도 있었는데 이는 서울대학이라는 한배를 탔으면 한마음, 한 몸으로 기쁨과 고난을 공유해야 한다는 공동운명체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본보기로서, 모든 동문들이 부부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동문끼리도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2) 주경(畫景)

a. Ketchikan 장승촌

우리가 다녀온 북미대륙의 북서쪽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totem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한국에서는 일찍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의 장승들이 있었으나 사라진 지 오래고 아프리카의 몇 곳에는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산림국에서 totem을 보존하고 또 새로 만들어 세우고 있다.

한국의 장승은 주로 마을 어귀에 세워져 한 부락의 경계를 나타내며 일부러 모습을 무섭게 만들어 각종 재앙으로부터 그 마을을 보호해 준다는 보호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곳 인디언들도 처음에는 자기 집을 나타내는 '문패' 대신해, 또는 한 씨족을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totem을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구전되어 오던 신화나 전설을 풍자적 또는 우화적으로 커다란 나무에 조각해서 한편의 예술품으로 승화시켜 놓았다.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신화의 Zeus에 상응하는 Raven이라는 새는 독수리 몸통만큼 큰 까마귀로 천지창조와 삼라만상의 조물주 역할을 하는 신(神)인데 그는 항상 totem의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고 그의 부리는 앞으로 똑바로 뻗어나가 위엄을 더 하고 있다. 장승에 등장하는 동물로는 독수리, 여우, beaver, 곰, 고래, 연어, 조개 등이 지방에서 흔히 접하는 것이며 또 인디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

Totem을 만드는 공장도 견학 했는데 나무는 주로 각종 삼목(cedar)과 솔송나무(hemlock)로 볼래는 어른 팔로 두 아름, 길이는 60feet까지 되는 거목들이다. 색깔은 천연염료로 내며 조각품들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플라망치를 써서 일일이 쪼아낸 것으로 어떤 것은 장승하나 만드는데 1년씩이나 걸린단다. 인디언들 중에 제일 존경 받는 사람이 〈다음면에 계속〉

시계탑 문집 5호 광고 모집 안내

시계탑 발간 40주년기념 '시계탑 문집'에 게재할 광고를 신기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광고 내용은 시계탑의 편집방향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크기는 전면, 반면 사분의 일면과 하단 광고로 정했습니다. 특히 많은 동문들께서 발간하신 저서나 자서전 등에 관한 광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도움을 줄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대합니다. 동창회 본부로 연락주시요.

SNUCMAA OF NA /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nucmaa@yahoo.com / (516) 365-5500, (516) 365-5501(fax)

〈전면에서 계속〉 특각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제일 영웅은 물개를 잘 잡는 사람이란 것이 이해가 간다.

우리를 안내한 David이란 친구는 산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마냥 너저분한 데다가 캄마르고 이가 빠져 합죽이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각종 totem과 clan house(씨족 집합소)를 설명 할 때는 마치 신들린 사람같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 새 없이 떠들어 대는 통에 운전사가 가서 데려와야 했다. 그분이야말로 자기 직업에 만족해서 사는 것 같아 일발의 존경심마저 우려났다.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 중에 곰이 동면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곰들은 가을에 연어 등으로 포식을 하고 배가 풀 따라 올라와 근처에 자라는 수면제가 들어있는 약초(이름이 있었는데 까 먹었음)를 뜯어먹고 약간 움푹하게

주지사의 관저나 주 의사당은 조출하고도 아담하다. 주노는 처음에 酒都였던 것이 나중에 州都가 되었다.

City tour때 가이드 말이 주도(州都)는 원래 1880년대 Gold Rush(금 소동)때 광부들이 회포를 풀러 오던 유곽(brothel)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로 아직도 일층은 빠, 이층은 여관으로 꾸며진 건물들이 몇 개 남아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돈 있는 곳에 남자들이 모이고 남자들이 모이면 여자들이 꼬여 들게 마련이며 여자들이 모여들면 총집이 난무하게 되어있다. 서부개척 시대의 재판, 'OK 금광의 결투'가 횡횡하고 현대의 사기꾼 Slippery Smith 같은 친구들이 판을 쳤으나 결국 '금 소동'으로 돈 번 사람들은 광부들도, 아가씨들도 아닌 포주들뿐이었다고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격으로.



파여진 곳에 드러누워 깊은 잠에 빠지면 그 위로 눈이 덮여 방풍과 보온이 된다. 6개월간 죽은 듯이 누워 있다가 봄이 되어 눈이 녹고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깨어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때 수심이 어떻게 암골을 지켜주는가도 들은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나니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b. Tracy Arm 협만 (峽灣)

늦잠 좀 자려고 했더니 새벽부터 "붕-붕-붕" 하는 소리가 들려 비상대피 훈련이라도 하나 하고 갑판으로 나가보았더니 눈앞에 빙하가 흘러내리는 산골짜기 하며 바다에는 얼음동산이 동동 떠다니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다. 배가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돌아 협만(fjord)을 빠져 나오는데 4시간이나 걸려 만년설과 얼음덩어리를 직접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얼음덩어리는 멀리서 보면 푸른색이 섞인 흰색으로 마치 사파이어를 보는 듯 했다. 이는 눈이 결빙하면서 공기를 밀어내서 빛의 굴절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바닷물의 색깔도 초록색이 섞인 푸른색으로 마치 에메랄드가 펼쳐진 것 같았다. 이는 빙하가 암벽을 깎아 내릴 때 돌 속에 들어있던 광물질 때문이라 한다.

근래에 알라스카판 붕이 김선달 같은 친구가 빙산을 곡괭이로 깨서 냉동 배에 싣고 일본의 긴자에다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청옥같은 빙하얼음이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가고 또한 카테일 잔에서 녹을 때 팍! 팍! 튀기 때문에 술 맛을 더 풍부어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다음날 Skagway에 갔을 때 박물관에 갔다 는 빙하덩어리를 자세히 보니 그 속에는 아주 가느다란 지렁이 같은 미생물이 들어있기에, 고급! 고급! 좋아하다가 기생충확고실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 있던 정명희(71) 동문이 여자도 마찬 가지라고 한다.

c. Juneau 주도 (州都):

미국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진 알라스카 주의 수도 주노는 도시면적은 미국 제일이나 주도(state capital)중에 제일 인구가 적다. 약 3만 남짓. Alaska란 '큰 땅'이란 말이고 Juneau는 그 근처에서 금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다. 주노는 깎아지른 산자락에 평지라고는 거의 없는 해변에 세워졌고

주노의 쓰레기통은 모두 철재로 되어있다. 그리고 뚜껑을 열 때는 두 단계의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 번만 돌려도 열리게 했다면 곰들도 쉽게 음식물 쓰레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누르거나 빼고 나서 돌려게 만들어 놔야 곰들이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일이 없게 된단다. 쌍 팔십 년도 때 만 해도 육체노동자들은 거의가 문맹이었기에 Smith를 비롯한 포주들이 그들에게 돈과 몸을 넣고 빼는 것만 가르쳐 주었지 들리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으므로 광부나 매춘부들은 항상 빛더미에 올라앉고 결국은 중간상인들 배만 불러주었을 뿐이다. "안 봐도 Video" 라고 온기철(71) 동문이 가져온 'Capitalism'이란 DVD에 다 나와 있다.

d. Salmon 부화장 (孵化場)

연어는 알라스카 천혜의 자원이다. Omega-3가 풍부해서 곰들이 즐겨 먹던 것을 인간들이 뺏어 먹기 시작했다. 살몬은 색깔에 따라 7가지로 나누는데 색깔이 빨갈수록 더 고급으로 쳐서 제일 빨간 1등급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색깔이 희멀건 연어는 주로 개 먹이로 쓰인다.

다 알다시피 살몬은 귀소본능이 제일 강한 동물이다. 민물에서 깨어나고 자라서 수년간 바다에 나가 놀다가 알을 낳 때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강물로 올라온다는데 이는 지구라는 큰 자식의 지남력 아니면 바다 물살의 흐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도 얼마간 연어와 DNA를 공유하는 모양이다. 김창구(71) 동문은 고향산천 그리워(알 까러?) 금년 10월쯤 한국에 나간단다. 무운장구를 빌어 마지않는다.

우리가 견학한 연어 부화장은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썰렁하게 어미 연어 두어 마리만 헤엄쳐 다니고 있었다. 기록 영화를 보면 연어들은 가파른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최고 3미터 까지 jump를 하고 있어서 어떤 낚시꾼(?)은 좋은 길목에 앉아 뛰어오르는 연어들을 몸뚱이로 때려잡는 광경도 있다.

그러면 왜 연어들이 기를 쓰고 계곡으로, 계곡으로 올라가려고 하나? 이는 알을 까놓을 보금자리를 찾기 위함이다. 연어가 일부일처제인지는 모르지만 암놈 연어가 자갈을 헤쳐서 움푹 파인 점시 모양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동안 수놈 연어는 보초를 서다가 암놈이 그곳에 알을 까놓고 가면 그 위에 점자를 뿌려 놓는다. 암놈 연어는 2천에서 1만 개의 알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하면서 모든 알을 방출해 버리고 수놈 연어도 정액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의 모양이나 색깔이 변해가고 있다. 모든 수놈 연어는 주둥이가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어떤 놈들은 등에 혹이 나며, 암연어들은 색깔이 변한다.

이와 같은 기본상식을 가지고 우리 동기들을 바라보니 그들 모두 등이 구부정하고 주둥이가 삐죽 나온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침 비도 부슬부슬 오고해서 처량한 마음으로 매점에 들어갔더니 모두들 견학을 안하고 그곳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주전부리를 하고 있었다. Mrs. 김성환(71)한테 한 조각 연어먹은 훈제연어는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술안주 감으로 한 포 사오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버스가 떠난 후였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여행을 주관했던 Jenny 전 씨의 배려 때문이었는지 그 동안 여행문화에 익숙해진 동문들의 잔뜩이 취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따로 기념품 파는 곳을 간 적도 없고 기념품을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아마도 연어의 일생을 보고 인생을 사는 지혜를 터득한 모양이다. 연어는 바다를 떠나 강물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일체 먹지도 않는다. 오직 알을 까기 위해서만 혼신의 정열을 쏟아 부는다. 과연 당신의 '알' 은 그 무엇인가(?)

e. Yukon 준주 (準州)

버스 두 대가 한 시간을 달렸다. 중간 국경선에서 검문까지 받았다. 'Yukon Territory'란 커다란 간판 앞에서 내렸다. 단체 사진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연대 출신 조만철 '박사'가 "이게 뭐 꼬?" 하고 여행사 측에 불만을 토로했다. 無知의 소치이다.

Yukon Territory가 어떤 곳인가. 이곳은 캐나다의 알라스카라고 할 수 있고 Mt. Logan 등 고산준령과 그 유명한 Yukon(거대한) 강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1895년 금광의 발견으로 사람들이 몰렸다가 지금은 전체인구가 3만 명 정도밖에 안되는 광대한 처녀地로 탐험가라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땅 덩어리이다.

생존을 위한 본능을 그려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된 Jack London(1876-1916)은 금을 캐려고 Yukon에 왔다가 자연에 매료되어 금 대신 '주옥같은 글'을 캐게 되었는데 대표작 <The Call of the Wild: 野性的 召命> 야성의 소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데려온 개가 자연에 적응하느라 야수(野獸)로 변했다가 인간의 사랑을 받고 순화되었으나 그 주인이 죽고 나자 다시 숲으로 돌아가서 이리 떼에 합류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 풀잎 보고 약 한 시간쯤 주변 경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한 집념의 사나이가 조그만 박물관하며 나무로

된 오두막집 숙박시설을 차려 놓은 곳으로 물살이 몹시 빠른 조그만 강 줄기는 철재로 된 난간을 걸어 건너가게 만들어 놓았다. 아마도 British Columbia에서 시작된 Yukon 강의 지류가 흘러가는 모양이다.

Yukon River는 캐나다의 북서쪽에 솟아난 거대한 산맥에서 시작해서 알래스카의 중앙부를 지나 베링해로 빠지는 약 2천마일 길이의 큰 강으로 어떤 이는 이 강을 kayaking(카누여행)하는 것이 평생소원이라 하기도 한다. 주위는 바위와 초원과 잡목들이 아우러져 그런대로 경치가 괜찮은 편이었다. 누군가가 "여기다 별장 지어놓고 한국에 나가 부동산장사 한번 해볼까" 했으나 이제는 한국에서도 부동산 열기가 가라앉고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의식이 팽배한 고로 Jack London의 시나 한 구절 읊고 넘어가기로 하자.

In the north nobody talks, everybody thinks. That is where I found myself.: 북녘에선, 아무도 말이 없고, 모두가 생각에 잠겨있네.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했네.

f. Glacier Bay (氷河灣)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Glacier Bay National Park은 1925년에 국립유적(monument), 198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Juneau에서 북서쪽으로, Skagway에서 남서쪽으로 100 마일 가량 떨어져 있는 8천 스퀘어 마일이 넘는 광대한 지역으로 UNESCO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간 10여 만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다.

어제 보았던 Tracy Arm Fjord가 magnificent(웅대)하다면 오늘 보는 Muir Glacier는 majestic (장엄)하다. 지구는 6억 년 전부터 수차례의 빙하시대를 거쳐 마지막 빙하시대는 약 1백 7십 5만년에 시작해서 1만 년 전쯤 끝났다고 한다. 빙하는 말 그대로 얼음 덩어리이다. 높은 산에 내린 눈들이 얼고 녹고, 녹고 얼고 하면서 아주 천천히(하루에 30cm도 못 되나 어떤 때는 15m씩이나) 흘러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내리면서 조그맣, 조

알라스카 戀情

이원택(71, 남가주)

보일 듯 말 듯 아득한 산 봉우리 사이로 크디큰 집채가 창공에 달 가듯 바다를 가른다.

대초로부터 내려왔던 눈 강, 호수, 폭포, 바람, 안개, 빙하

하늘을 찌를 듯 깎아 놓은 산골짜기 밑으로 은백의 빙하가 독수리 물 차듯 램을 고른다.

천만년 고이 간직했던 산 숲, 계곡, 들꽃, 바위, 구름, 이끼

갈색, 흑색, 황색, 곤색, 백색, 연초록, 진초록, 비취, 사파이어, 에메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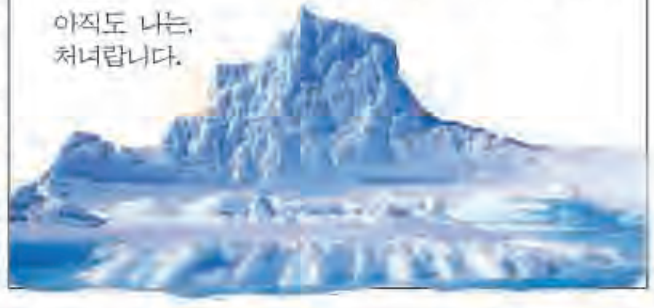
귀여운 곰, 순진한 연어, 의젓한 고래, 고고한 독수리

연약한 고사리, 청초한 산귀비, 날라가는 바람꽃, 잊지마오 물망초

미끈한 다리, 윤기나는 머리, 삼킴한 뱀새, 팽광한 짓통, 잘복한 허리, 純白의 戀情

쳐다봐요, 맡아봐요, 만져봐요, 벗겨봐요
헤쳐봐요, 꺾어봐요, 품어봐요, 맘대로 해 보세요

아직도 나는, 처녀랍니다.



금식 산을 깎아 분지를 쌓아 올린다. 알래스카의 빙하는 지구의 표면이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다.

그러나 이날 역사의 현장을 다녀온 동문은 하나도 없다. 아직도 생생한 정인용(71) 동문 등 서너 명만 중간지점 폭포 있는 곳까지 가고 나머지는 visitor center에서 video로 빙하의 끝부분이 바다로 떨어지는 장관을 음미했을 뿐이다. 이는 야구경기를 보려고 야구장에 직접 가보기 보다는 집에서 TV를 보는 편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과 비견할만하다. 그래도 분위기는 흥분이었다. 시력이 나빠져서 윤곽만 보인다.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침빙' 하고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침빙, 침빙, 침빙, 우리의 인생도 빙하의 일생과 무엇이 다른가. 산 봉오리에 사뿐사뿐 내린 눈들이 서로서로 밀고 끌면서 결빙을 한 후 밀으므로, 밀으므로 흘러내려 빙하를 형성하고 그동안 붙어있던 모든 양극을 토해내니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접어든 대부분의 동문들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과연 무엇을 토해내고 '침빙' 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나 생각이 많았을 것이다.

우리는 온갖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도 심각하다고 한다. 빙하가 서서히 없어진다고 한다. 슬픈 일이다. 우리 동창회의 앞날을 보는 것 같다. 서인석(73) 차기 회장은 앞으로 십 년 후면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가 자연소멸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 누가 자연의 변화를 바꿀 수 있겠는가. 그 누가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 동안 동창회 모임에 소환했던 동문들이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때 잘해!!

g. Butchart 정원 (庭園)

이번 여행의 finale로 6일간 대자연의 경치를 즐긴 후 마지막 날은 Victoria 시 근교의 Butchart Garden에서 밤늦도록 소자원의 경치를 만끽했다. 대자연은 신이 만들었고 소자원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는 겸손하고 겸허해지지만 소자연 속에서는 발랄하고 호탕해진다.

35에이커 대지에 언덕도 있고, 풀도 있고, 계곡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모인 5천여 종의 온갖 나무와 풀과 꽃들이 당신을 반겨준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것. 균형이 잡혀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것 그리고 무언가 당신의 마음을 뺏아드리는 매력이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푸른 초원이, 어떤 이는 하늘을 찌르는 낙랑작송이, 어떤 이는 간드러진 회양목이, 어떤 이는 화사한 장미가, 또 어떤 이는 청초한 들꽃이 마음에 와 닿으리라.

꽃이 나를 반기나, 내가 꽃을 반기나, 마음먹기 나름이다. 모든 꽃들은 다 예쁘다.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 고

향의 꽃들은 더 귀엽다. 대견하기까지 하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심전심(以心傳心), 오랜 친구일수록 더 소중하다. 꽃 속에 그대가 있고 그대 속에 꽃이 있나니-삼삼오오 짝을 지어 정답을 나누다 보면 서로의 훈훈한 향기가 풍겨 나온다.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킨다. 자연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Butchart Garden을 거닐며 어깨동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참으로 정답과 즐거운 여행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화의대 출신 정선미 선생님과 같이 참가한 최고 고참 54년도 졸업생, 이(노)영자 선배님께서 하신 "난 재미없으면 안 따라다녀!" 란 말씀이 다시 한 번 들리는 것 같다.



3. 후경 (後景)

우리 동창회가 생긴 후 19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배위에서 치러진 이번 학술대회는 장단점이 있었으나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다소 참석 인원이 적었던 것은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을 묶어놔야 한다는 점, 비행기 값을 포함한 여행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 뱃멀미, 의료 시설, 응급 상황을 우려한 건강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세월호의 여파로 출국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크거나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알차고 재미있으면 그만이다. 구태여 다뤄고 골리앗의 예를 들지 않아도, 이번 행사는 아담스런 체격의 김성환(71) 회장 부부가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예이다. 남가주 동문 부인들 사이에 '마당발 겸 또순이 겸 억척'으로 통하는 3관 여왕, 김영애 중전마마의 극진한 내조로 모두들 싸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보고 잘 놀고 왔다.

Mrs. 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시가 70분정도 하는 큰 수건을 깎고 또 깎아서 20분에 사 하나씩 선물로 주었는데, 이 수건은 깎아도 좋고 감싸도 좋고 씌워도 좋고 닦아도 좋고, 그냥 만져봐도 아주 좋다. 두 사람의 배를 달을 만큼 넉넉하기도 하다. 이번 여행에서 아무 것도 못 건진 동문들도 이 수건 하나 받은 것으로 잡 자리에서 부부간의 금슬이 더 좋아졌다고 호탕해하고 있다고 한다.

가수 최현과 식도암

차민영(79, 남가주)

몇 년 전 한국의 유명가수 최현이 불과 64세에 식도암으로 유명을 달렸다. '오동일' '가을 비 우산 속' 등 많은 히트곡으로 감명을 남겼는데 일찍 유명을 달리해 안타깝다. 그에 관한 기사는 식도암을 늦게 발견해 힘들게 투병하다 사망했다.

원래 한국인들은 위암이 많기 때문에 40세가 되면 별 증세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위내시경을 해야 한다.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식도와 십이지장도 같이 보게 되는데 이때 식도염과 식도암을 발견하게 된다. 필자는 최현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위내시경을 한 것은 언제인지 궁금했으나 그 기사는 없었다.

식도(esophagus)는 입에서 시작해 위까지 이어지는 관(tube)처럼 생긴 기관이다. 여기에 암이 생기면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삼킨 음식이 식도 중간에 걸려 가슴이 답답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처음에는 딱딱한 고형음식이 걸리지만 시간이 갈수록 식도가 좁아지면 유동식을 넘기기도 어렵고 마지막에는 물을 삼켜 위로 보낼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음식을 먹으면 구토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식도가 가는 관 같은 구조이므로 암초기부터 증세가 있을 것 같지만, 식도는 탄력 있는 고무관 같은 구조라 초기에는 아무런 증세를 못 느끼는 수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최현의 경우와 같이 증세가 있어 위내시경을 해보면 벌써 3-4기인 수가 대부분이다. 3-4기이면 살아남을 수 없다. 증세가 있는 다음 위내시경은 늦었다.

식도암은 한국에서 해마다 9천여 명 정도가 걸린다. 위암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일단 걸리면 사망률은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미 늦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식도암은 생기면 쉽게 바깥쪽으로 자라는데 위 조직과는 다르게 바깥을 싸고 있는 장막(serosa)이 없으므로 쉽게 기관지와 폐로 암이 퍼져 나간다. 그러므로 발견했을 때, 이미 수술로 완치하기가 힘든 법이다. 또 식도 벽과 그 주위에는 림프관과 혈관이 풍부하므로,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림프액이나 혈액의 흐름을 타고 림프절이나 폐, 간, 뼈, 뇌 등의 장기로 빨리 퍼지게 된다.

그러면 식도암의 증세는 어떨까? 음식물이 막히는 느낌, 구역질, 식도가 따끔거림, 위산역류, 흉통과 등의 통증, 목이 쉬, 등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아주 초기는 거의 증세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

식도암의 정확한 진단은 꼭 위 내시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Barium swallow라고 부르는 식도 조영술(X-ray의 일종)은 진행된 식도암을 찾을 수 있으나 초기 발견은 어렵다. 또 진행된 식도암을 찾았다 해도 다시 위내시경을 해 조직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초음파로는 식도암을 알 수 없다. Endoscopic ultrasound라 부르는 초음파 내시경은 식도암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 CT나 MRI는 진행된 암과 주변 장기의 관계를 보기 위해 중요한 검사법이다.

식도암의 병기는 0기에서부터 4기(말기)까지 5단계로 나뉜다. 치료는 외과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항암제 치료)이 있다. 외과요법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근치술이나 진행이 심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식도를 잘라내면 모자라는 부위를 인조

플라스틱 관으로 이를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소장이나 대장을 10-20cm 정도 잘라 이어준다. 즉 대수술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 만약, 위에 가까운 부위에 식도암이 생겼다면, 위를 끌어올려서 식도를 자른 부위에 이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항암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병행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도암은 초기암을 빼고 5년이상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무서운 식도암은 흡연, 과음, 위 식도 역류병이 3대 원인이다. 또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오랫동안 많이 먹게 되면 반복된 화상을 일으켜 변형된 세포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40세가 지나서는 증세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해서 위암과 식도암을 조기에 발견해 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황토길

정두현(61)

아쉬워
아쉬워도
돌아 서서 오는 길
황토길
거기
뒤돌아 보았다
뜨거운 눈시울
자꾸 뒤만 바라 보았다
무덤도 없이
비목도 없이
출로
잡들어 있는 너
야생화 만발한
옛 고향마을
동산
모래알처럼 흩어진
부스러지
흩어진
슬픔
길옆에 피고 시들은 들꽃처럼
해 묵은
해 묵은
슬픔
그래도
차마
아쉬워 또 아쉬워
뒤돌아 보았다
황토길
터벅터벅
출로
나는 걸었다
한하운의 문동이 되어
나는 걸었다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모집하는 원고 내용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조사, 기행문, 서평, 서간문, 독후감, 영화평, 시, 농담골목 유머,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다만 정치나 종교적인 내용은 편집회의에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바랍니다. 아래한글, Word를 사용한 word text로는 2매 정도로 e-Mail, or CD로, 모든 산문은 200자 원고지 12매 내외, 기행문은 23매 내외.

Won T. Lee, MD
4525 Atherton St., Long Beach, CA 09815
(O) 562-961-0155, (C) 562-743-1436, (F) 562-961-0161
eMail: wonlee0120@gmail.com

장석춘 형을 보내고

임영신(58, 인디애나)

항상 명랑하고 행동도 민첩하여 여행도 잘 다니던 석춘 군이 지난 십여년간 계속 다쳐오는 중병에 이은 중병을 오뎅이처럼 이겨 내더니 이번엔 넘어져서 생긴 뇌출혈로 다산 다난하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낙관적이었던 석춘 군 다음에 끝까지 평화로운 표정 이었다고 합니다. 이 년 전에 동창회 카리비안 크루즈에서 꿈과 같은 일주일을 다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마지막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면 이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석춘군은 진남포중학교 교장이시든 아버님과 단둘이 '석 달의 약속'을 어머니님과 두 누님께 하고 월남하여 고생을 많이 하며 고향 동창인 입단일군과 더불어 의예과에 입학했습니다.

아버님은 제자들이 주선하여 부산국제시장에서 용달 일을 하시던 석춘군을 공부시키셨고 한때는 부자가 어느 건물 계단 밑에 있는 청소용품창고에서 숙식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서울로 수복하고 나서 우연히 장석춘, 입단일, 전세웅, 원치규 제군들과 같은 실습그룹에 들게 되어 우리는 급속도로 더 가까워지고 학교 밖에서도 물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교사를 해야 할 형편이었고 다방 차값 내기도 힘들었지만 무슨소리 하기는커녕 노는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주를 타고난 석춘군은 담구실력이 2~300대가 되었고 이정재를 비롯해 동대문 강패들이 근처에 앉아 있는데도 떠들썩하게 놀았습니다. 석춘군은 또

사교춤에도 두각을 나타내어 스텝을 하나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사람보다 더 잘했습니다. 통행금지 때문에 우리 댄스파티는 항상 all night 이었지요.

의대 졸업 후에는 일당이 육해공군으로 나누어져서 휴전선 근방에 있던 석춘 군과는 몇 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서울서 개업하시는 의사분의 사위로 들어갔다는 소식만 알고 있었지요. 드디어 나도 서울해군병원으로 발령이 나서 찾아가 약대출신인 부인과 잘사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미국에 온후 석춘군은 부인 덕으로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어 Iowa에 살 때 한인교회를 하나 창립해서 국제결혼한 분들을 위해서 동시통역을 꾸준히 하여 성정은 완벽하게 공부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이곳 인디애나에 부흥회 하러 오셨을 때 석춘군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난히 큰 수영장이 있는 집을 사서 수영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를 보고 앞으로 골프 못 치면 축에 못 간다고 속성 골프입문을 시켜준 것이 바로

석춘 군입니다. 그 바람에 결국 골프장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석춘 군이 여행이 가능하게 되자마자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당국이 금강산 구경만 잘 시켜주고 두 누님과 만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지난주에 진남포중학교의 선배이신 김동섭씨가 동문회지에 실린 석춘군의 기고문 두편을 보내주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석춘 군이 글을 그렇게 잘쓰는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찌나 박식하고 빈틈이 없는지 일류교수가 쓴 역사 교과서 같습니다.

그동안 라스베가스에 갈 때마다 석춘 내외분 만나는 것이 재미였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든든한 의사 아드님이 같은 곳에 사니 부인 걱정은 안 해도 되겠고, 이제 큰 짐을 다 내려놓았으니 편히 쉬고 조만간 찾아올 친구들을 기다려 주시오.

- 아래 게재한 '소 메기로 간다'는 진남포중학교 공문회지에 실린 고장석춘 동문의 글입니다.

소 메기로 간다

고 장석춘(58)

'뱃말'은 나의 아버지가 태어나신 곳이며, 마을 이름이다. 용강군 삼화면 주립리(뱃말 = 배가 있고, 나무숲이 있는 마을)를 말한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마을로, 삼화 고을에서 가깝고 넓은 자갈이 깔린 개울이 있고 이곳을 건너 계속가면 삼화 우산장이 오른쪽으로 보인다. 어렸을 때 '익함 삼촌'과 삼화 우산장에 놀러 갔다가 매미우는 소리에 매료되어 돌아온 생각이 엇그제 같다.

이 '뱃말'에 결성 장 씨들이 모여 산다. 5, 60호가 될까, 결성은 충청남도 홍성군의 한 지명으로 본래는 백제의 결이현 이었다. 나도 호적에는 주립리가 출생지로 되어 있지만 자라난 곳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 철이 들어 진남포시 비석리에 살면서 어머니 따라 잔다리 고개를 넘어 삼화 고을로 빠지는 달구지 길을 따라 '뱃말'을 찾아가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 진남포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께서 호적을 출생지로 등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실을 이야기 해 줄 사람은 다 하늘나라에 가셨다.

왜 마을 이름을 '뱃말' 이라 했을까 궁금하다. 넓은 개울에는 배도 없고 나무숲도 없다. 여러 해 '뱃말'을 찾았으나 장마 때도 개울물이 허리에 차지 않았다. 그러나 물이 많았을 때 나무터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나무숲도 벌목된 것으로 짐작이 든다. 하여간 '뱃말'은 인자하시고 허리가 구부러지신 할아버지가 계시든 곳이다. 우선리 서쪽 국사봉이 있는 휴양소(나중에 삼화우산장으로 신축, 개명)는 예로부터 경관이 수려하고 호수주변에 과수원이 있고 울창한 소나무와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 수산장은 휴양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삼화 우산장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는 굽어 돌아 '뱃말'에서 휘어 사동천의 삼화로 흘러내린다.

시야를 넓히면 일제는 한국을 삼키려면 문제를 일으킬 청나라와 소련을 약 20년부터 견제하기 시작했으며 청일전쟁(1894년)은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1000년 중국의 변방속국 위치에 있던 한국을 해방시키고 일로전쟁(1904년)의 결과 일본은 남만주철도를 차지하고 여순과 대련을 소차지(疎借地)로 인정받고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1905년 일사늑약이 체결되어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1906년부터 보통교육제도가 법령화되고

강력한 일본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학급규모는 60명으로 정해지고 보통학교는 교장, 교감 훈도(선생) 및 부훈도를 두게 했으며, 교감은 일본인 교사가 겸임하게 했다. 그리하여 1910년 한국을 통째로 삼키는 한일합병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 아버지께서 1911년 1월 26일에 태어나셨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이다. 아버지께서 삼화 고을의 삼화보통학교를 나오시고 평양농업학교를 졸업, 19세에 진남포 가덕학교 교사로 첫 부임하셨다. 제가 소학교에 취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학제변경이 심해져 나는 심상소학교 때 입학하여 초등학교 때 졸업한 것이 그 예이다.

제가 풍정심상소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아버지께서 삼화보통학교 교사를 거쳐 진남포 풍정심상소학교 교감 선생으로 부임했을 때는 제가 중정학교 4학년 때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소 메기로 간다' 라고 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집에서 나가시곤 하셨다.

이것이 엇그제 시작될 것이 아니다. 나의 두 누이가 자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큰 누이는 평양 점의고녀에 작은 누이는 평양 서문고녀에 다녔다. 그 때부터 내가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그 뒤에 숨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살면서 학교 교감선생이 아침 집에서 소도 없고 풀밭도 없는데 나가시면서 '소 메기로 간다' 라고 하니 농담으로 듣게 된다. 농촌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에 풀 먹이는 일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아버지께서 평양농업학교에 입학하기 전 할아버지를 도와 소 농사를 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 메기로 간다는 말은 '일하러 간다'로 해석되며 소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농사일을 지을 수 없다.

제가 서울의과대학을 마치고 그동안 면제 받았던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육군 군의학교에 입교하여 소정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육군 제 11사단 26연대 의무중대장으로 복무할 당시 중부전선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를 받았다. 장례식에 고인이 되신 최종민 선생과 이용흠 선생 등 진남포에서 교편을 잡으셨던 남광(南光)회원들이 참석해 주셨으며, 그분들께 늦게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75년 한국에 나와 아버지의 산소를 청량리 공동묘지에서 경기도 모란공원으로 이장했을 때 이용흠 선생께서 바쁘신데 직접 나오셔서 저를 도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 12월 진남포를 떠나면서 '늦어도 3개월이면 집에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하시던 아버지께서 58세의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34년만 더 사셨으면 미국 구경도 시켜 드렸을 텐데,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피난시 광복동 국제시장에서 내 학비를 마련하려고 검게 염색한 군복을 입고 정종 병을 포대에 넣어 걸머지고 다니시던 아버지, 그리고 그 사실을 가정교사를 하고 있던 저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다니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환자진료에 전념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서 큰소리를 내면서 '소 메기로 간다' 라고 외쳤다. 아들 마이크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이다. 풍정학교 4학년 때 들은 아버지의 '소 메기로 간다'는 소리를 내가 되풀이한 셈이다. 부친자전이라 할까, 마이크는 이상하게 나를 쳐다본다. 나도 깜짝 놀랐다.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말하신 '소 메기로 간다'는 말을 내가 되풀이 하다니 그것도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미국에서 평안도 사투리로 말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렇게도 큰 것인가. 그 때부터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소 메기로 간다'가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서 내 입에서 나온다.

1996년 가족을 만나 보려고 평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 들렸을 때 은사이신 이석우(2009년 작고) 선생님이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장두현(고종 3회, 2006년 작고)과 저를 서울시 후암동에 있는 (주)한국해양과학기술 사장실로 초청받아 오찬을 대접받았다. 헤어질 때 남광회지 제2호를 주시면서 32페이지를 읽어보라고 다짐하셨다.

손 2014년 4월 16일 8시 48분

서윤석 (68, 버지니아)

가슴이 터져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꿈을 키우던 꽃다운 아이들이었어요
아, 그 목숨이 달린 손들을
우리는 잡아주지 못하였습니다

무력무력 자라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을
탐욕에 젖은 손,
양심이 없는 손,
직책을 지버린 손들이
무섭고 추운 바닷속에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먹으로 땅을 치면서도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며
찢어진 옷깃을 차마 아이들에게 보일 수 없습니다
피부에 쌓인 시꺼먼 때
서로를 원망하는 고함소리, 독이 섞인 고인물,
태양을 가리려는 먹구름 속에
아직도 우리의 더러운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물 속에서 땅 속에서
하늘 위에서 손짓합니다
어서 맑은 강물을 열라고 손짓합니다
깨끗한 손, 문화인의 손,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손,
따뜻한 손을 잡고 싶다고 영영 울고 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32페이지를 펴보니 그것은 이용흠 선생님께서 쓰신 "스승님 장익점 교장 선생님을 추모함" 이었다. 읽어 나가면서 즐겁게 놀랐다. 왜냐하면 나에게겐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 상(象)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이석우 선생님께서 남광회지 제2호를 보여 주신데 고맙게 느꼈으나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감사의 뜻을 직접 전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 그리고 이용흠 선생님이 묘사한 저의 아버지상이 "청빈하고 오동나무 같이 변하지 않는 분" 이라고 했고, 더 놀란 것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일으키게 자극을 주고 그 당시 잡자던 농촌사회에 계몽운동이 일어나게 자극을 주었다" 는 데 감탄했다.

돌이켜 볼 때 자라나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야단친 적이 나의 기억에는 없다. 어머니께 야단맞은 일은 기억이 난다. 내가 성인군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특별히 저를 더 사랑하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버지가 '소 메기로 간다'고 하시던 그 때가 그림습니다.

-이 글을 아버님의 영전에 드립니다.

이절 삼절, 이견 담연히 음악 악보 얘기거나, 혹은 잠언이라도, 성경 몇장 몇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쓰려는 이견 엉뚱한 '담배'에 관한, 또한 게서 파생된 얘기가 되겠다.

우리 말 '담배'의 어원을 보자면, 참 그럴듯하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그 연유가 두 가지인데, 중국(담? 명?)에서 유래했을 '흡연초'를 참으로 재미있는 연유로 '담배'라 부르게 됐다는 얘기가.

그 하나는, 신기한 호기심에 처음엔 어른 애 할 것 없이 아무나 빼끔대며 피우게 생겼었는데, 제물포 앞바다인가 서강 마포 강나루인가, 중국에서 뚝배기가 다들 때마다 그걸 구하느라 물러드는 사람들에게 "..., 그거 이번 배엔 안왔어. 그건 다음 배에 와요, 다음 배에!"에서, "..., 다음 배!", "담배!"로, 그 이름이 굳어졌다는 얘기가.

또 하나는, 어른 애 할 것 없이 피워대니, 그당시 귀하기도 했으려니와 어린애들까지도 어른이나 같이 뽑어대는 곰방대가 꿀벌건 인지라, 어른들이 애들더러 하는 말, "..., 너흰 이 다음에 배워도 된다, 어른된 다음에 배워라!"가 "이 다음에 배워!", "이담배 배!", "담배 배!"에서, "담배!"로 순 우리 이름이 생겼단 얘기가.

얼마나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고도 남는 근사한 얘기인가!

나도, 담배를 시작하기는 의대 본과에 올라가서 비교적 늦게 배웠다, "다음 배"에 왔던지, "담 다음 배"에 왔는지, 한참 "담배 배운" 거였다.

본과에서, 그 당시 우리 '해부학 시간', 일주일마다 두어번씩 하던 '인체 해부(Cadaver Dissection)' 실습 시간이면, 대여섯명씩 시신 한구에 매달려 반나절 이상씩 씨름을 하곤 했던 사실. 그런데, 그당시 그 방부액이 (Formaldehyde) 얼마나 독하고 매워서 눈물 콧물이 하도 나는지라, 틈만 나면 자주 밖으로 나와서 양지바른데 나앉아 담배를 피우는 일이 많았었다.

그 당시, 유행처럼 '개피 담배'를 사서 넣고 다녔었는데, 학교 올라가는 종로 사 오가 뒷쪽으로 빠지면 '양키 물건' 파는 골목이 있어서, 용돈이 궁한 때라, 개피로도 파는 양담배를 몇 개피 씩(개피담배)만 사 넣고 다니며 아껴 피우곤 했었다.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개피담배' 냄새가 그렇게도 향기롭고 구수할 수가 없었던게 지금껏 생각이 난다.

피우다 말고 어쩌다 아껴 꺼서 뒷포켓에 간수한 공초면, 그토록 더 구수한 담배 향이 곁엿 사람들께 까지도 풍겼는데, 지금도 그 냄새-그 향은 코끝에 선하다. 그렇게도 향기론(Such a sweet n' fragrant)냄새와/그건 새 개피 담배네; 그토록 구수한(Such a toasted)향은/이건 뒷주머니에 간수한 공초담배네; 그런걸, 담배를 안 피워본 이들은 모른다.

그렇게, 해부 실습시간에 시작한 내

한참 "담배 배운"놈이, 많지는 않고 하루에 대여섯 개피, 한갑을 가지면 한 사나흘 가는 정도였다. 며칠이 멀다, 왜 더, 비오는 날에, 친구들과 어울려 관화문/침진동 막걸리/빈대떡 집

납게 널려 있는 담배공초, 길바닥 길 모퉁이에 아무데고 버려 나뎡구는 빈 담뱃갑, 식당에서 왜들 물고 나서다 사방에 버려 흩어져 널려있는 흥하기 짝이 없고 그 지지분한 꼴 이수시개,

이절 삼절

- 말과 글은 세월 따라 변한다 했는가? -

이 홍 빈(63, 대뉴욕)

으로라도 빠지는 날이면, 깊은 방에 자리를 잡고 제각기 지닌것 다 털며, 한창 나이인지라 개똥철학을 떠버리고 인생을 말 한담시고 그날 가진 것들을 다 날리는 날이었다.

그러던 것이..., 그렇게도 구수하고 버릇이 됐던 담배를, 하루에 딱 끊은 얘기:

미국에 와서 초창기, 조그만 아파트에서 애들을 키우며, 그야말로 정신없이 밤낮으로 일만하고 살 때에, 물론 애들을 생각해서 었지만, 집 안에서는 물론, 또, 저녁이면 내쫓겨나 밖에서 그날 마지막 한대를 피우곤 했었는데, ..., 그러다가 어느날, 그밤 달이라도 밝아 감상적 타령 이었던지, "..., 이렇게까지 하며 이걸 피워야 할건 뭐냐?" 는 생각에, 오기로(?) 그날 이후 딱 끊어 버렸다.

그후 한동안 내농담이, "..., 우리집 쪽에서 '딱!' 하는 소리 안들렸어? 들었어? 어, 그게 내 담배끊는 소리였다구!" 하며, 용케도 담배 '딱 끊어버린' 걸 자랑처럼 떠들곤 했었다.

'이 차적' 간접 흡연 (Secondary Smoking)도 당사자 못잖게 나쁘기는 매한가지라는데 다 아는 바이나, '삼차적' 흡연(Tertiary Smoking)피해란 말은 잘들 모를 터인데, 그건 애연가 집안에/가구 등에 배인것 까지도 건강에 안좋다는 얘기가.

하긴, 어릴적부터 우린 어른들께, 자라며 듣고 배운 사실이, 술은 적게/알맞게 적당량/소량으로 절제를 하면 백악이 되고 몸에/심혈관-그 순환에 이로운 것이나, 담배는 백해무익이라 하질 않았던가. 상식적으로 봐도, 타들어가는 그 연기를 빨아서 폐내에 깊이 골고루 흡입 분산을 하고 있는 터이니.

담배를 피운단건 잘못된(?) 개인 기호인지라, 건강에 어떻게 해소증 폐암 등에 저찌고를 말할일은 안(?)되나, 우리 한국인 많은 이들이 유별나게도 유난스럽게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건 사실.

하지만, 유난히 한국인들이, 젊은이들이 더 더욱, 담배를 너무나들 뒷감당 없이 피워대고 뒤처리 없이 아무데고 마구 내버려 어지럽히는 그런 몰상식 물지각스런 공해를 너무나 많이 본다.

아무데나, 더럽고 어지럽고 불쌍사

벗겨 그냥 버리는 껌껌질, 씹다 아무데고 뱉어버리는 껌, 층계건 보도건 창 문설주건 아무데나 놓아 버리고 가는 드링크, 쑤셔옴린 냅킨까지, ..., 또, 하물면, 위생상으로 봐도 용납이 안되는 그닥 흥하게/미개 몽매스리 아무데고 마구 빨는 침, ... 등등, 공중도덕심에는 아예 불감증인듯한 막무가내한 한인사회, 그런 못된 짓거리, 흉한모습, 그런 못된 풍습, ..., 공중도덕심이 전혀 몸에 안배인 그런 물지각한 시민의식, 그런걸 두루 보자면, 흥하고 한심스럽고 부끄러워서 너무도 눈과 마음에 거슬려 못된 욕이 '안나올' 수가 없는 지경이다.

오죽하면, '보로'에 상의해서, 내게 "단속(Policing)권한" - 벌금 댈이고, court에 부르고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 그런 권한이라도 주어진다면, 공중도덕 교육과 그 시민의식 부양차원에서 내사 기꺼이 해 보겠단 생각으로, 실제로 그럴수있는 여부를 상의도 해 보았었다.

지금도, 어떻게하면 "그러지 말기" 캠페인이라도 꾸준히 벌리면, 저들에게 교육이 될까 고쳐질까, 그 막무가내한 공중 도덕심/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글썽다. 별 성과는 없고 욕만 하고 부화만 끊다 말 것같은, 혹 무슨 상갱이/쌈질이라도 혹 되다말것 같으니 말이다.

한번은, 한 젊은 여인이 내 앞에서, 등을 돌린채 서서, 세상 온 고쳐는 다 짊어지리라도 한듯, 한손엔 커피, 또 한손엔 담배를 들고 연거푸 피워대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닥에 그냥 버리며 돌아서기에, 양해로 불러 세우며, 왜, 그렇게 해가며 우리 욕을 먹느냐, 이만치 쓰레기통이 있는데..., 했더니, 이절 삼절은 하질 말란다. 무슨 말인지를 금방 못 알아듣고, 나중에 집사람과 그 얘기 끝에 그게 뭘 소리였는지를 알아듣고는 같이 고소를 지었다.

뻥한 같은 곡조에 반복되는 지루한 '이절 삼절일랑' 말란 죽순, 웬 잔소리나, '뻥하고 지루한 소리' 집어치우란, 더 부연치 말란 얘기가.

한번은, 한 젊은이, 그런 나무랩을 알아듣곤 죄송합니다며, 일른 제가 버린 공초를 주워드는 미안한 사과의 눈길, 이놈은 그나마 어른들 밑에서 그래도 반듯하게 자랐구나 했던생각. 또, 어떤 늙은, 마지못해 불붙은채인

제 담배를 집어는 들면서 당신이 뭘데 하던 눈빛. 한 어린 청년은, 사방 널려 더럽게 흩어진 담배공초를 마침내가 한심스럽게 즐기며 지나치던 한 '케이크-커피점', 그 바깥 테이블에서 친구와 더불어 피우고 앉았던 담배를 그냥 바닥에 버린다. 더 더욱 한심한 꼴은, 저희 테이블에 (억지로라도)놓였는 강통인가 재터리가 있던. 그래, 미안지만, 한마디 하자, 이 더럽게 널려있는 공초들좀 봐라, 다 너희가 하는 짓. 네 보기에라도 어떠냐." ..., ugly Koreans!", 그런 손가락질 그런 소리 계속 들으며 살래? 내 실례는 했노라며 돌아서니, 멧쩍-멧썩한 얼굴로 주위는 들며, 기어드는 소리로나마, 마지못해 죄송은 하더라.

집사람은, 늘 질색을 하듯, 내 그러는게 아주 typical한 Cranky-surlly n' grumpy 'Oldman's Signs', 그 징후라고.

매번 맨날, 그럴 때마다, 아내의 얘기가, 당신이 암만 그런다고 그런 풍조를 당신이 행여 고쳐 놓겠느냐는.

그건, 아마도, 마치 '노자'의 '爲而不爭'(타격태격 말고 살아가거라), '공자'의 '時中之道'(때에따라 시대에 따라 맞춰가거라)란 가르침에 버금가는 '말씀'이 되겠느냐는 핀잔.

다시, 그게, 못배우고 자랐을 계집인건 뻥한 노릇, 버릇없고 막돼먹은 젊은이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후, 나중에 곱씹어 가만 생각해 보니, ..., 그래, 말/언행(?)이라는건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하잖는가.

그 이후, 한국 TV드라마에서 한 젊은애가 똑같은 그 말을 사용 하는걸 보며, "...아하, 그때 '이 삼절을 말라'던 그 젊은계집이 비디오며 드라마며, 등등, 본다는게 온통 모른게 다 고국에 쏠려있는 경향에서, 그렇게 배운거로구나?" 하고, 씩스레 웃었다.

한참 더 웃으운건, 집사람이 그후, 오다가다 내 잔소리라도 나올 기미면, "..., 우리, 2-3절은 맘시다!", "일절만 합시다, 일절만!" 하면서, 마주 웃는다.

그렇게, 어쩔수 없이 배운 그런 '요셋말'을 우리도 그렇게 써먹는거다.

무엇이 돌변해가는 탈바꿈, "돌연변이"라는게 (오래)반복이 되다보면, '괴물같은'게 생겨나게 마련.

급진 급변하는 '인터넷 세상', 급변하는 이 세상/그 세태에 편승해서 새로 생겨나는 괴물스런 말과 글들.

그 아름답고 정연한 우리말과 글이 그 '표준'을 벗어나 서서히 무슨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건 아닌지.

이건, 한편에서, 내 배운자만의 양식 있는 기우일가.

하지만, 그래, 어차피 말과 글은 세월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하잖는가? 비유컨대, "The waters bend to the shapes of the land"란 멋진 말에 걸맞는, 그렇지만, The waters may well be able, the, to change the landscapes, though. (우리/'63졸업 50주년 '기념 문집' 게재분)

2014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에서는 2014년도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대상: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성성적이 우수하거나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모집인원: 7명 이하 (장학금 각 \$2,000 내지 \$5,000)

구비서류: ● 신청서 (www.snucmaa.us Website에서 download)

● 성적증명서(original transcript), 자필소개서(essay), 추천서(original) 2통

구비서류에 결격이 없고, 신청마감일 이전에 email, 우편으로 서류 접수된 응모자에 한하여 심사.

응모기간: 2014년 9월 5일까지

발표 및 수여: 개별 우편 통보 (미동부 시상식 2014년 11월 22일, 미서부 시상식: 추후발표 예정임)

접수 및 문의: SNUCMAA of North America (전화문의 사절)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nucmaa.scholarship@yahoo.com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이 영 인

이민자들은 흔히 이민 당시의 자기 고향의 문화와 정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이민생활을 해 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지키고 향수의 괴로움을 잊으려면 이민 전후의 상황을 간직해야 생의 의욕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현실은 고국과 고향이 아니지만 마음속은 옛 생각과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현실의 고달픔을 이겨 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신과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의 억압(repression)'이라 칭하고, 정상인에게 흔히 있는 현상을 건강한 감성의 억압으로 보고 있다. 나는 한인 이민자들 중에 미국문화에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환자들을 보았다. 다음에 기술하는 사례는 너무도 대표적인 정체성을 잃고 생의 의욕도 떠나보낸 불쌍한 정신병 환자이다. 나는 이 모녀들도 우려했지만 가족이라는 윤리성마저 사라진 인생들이고 부모자식간의 정과 사랑도 잃어버린 완전히 고립된 실존적 존재성 망가진 인간으로 되어간 사람들을 나는 지켜 보았다. 그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정신과가 가진 약과 치료도구를 모두 초월한 인간성을 지켜보며 정신과의사인 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인간은 문화와 환경을 떠나서는 문화생활을 할 수 없고, 실존이라는 생의 의미도 본능적인 욕구도 행복을 찾지 못 할 뿐 아니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 말 할 수 있다." 이런 개념(문화철학)을 가지고 다음 사례를 보아주기 바란다.

20세기가 저무는 마지막 해에 뉴욕 맨해튼에서 동쪽으로 강(East River)을 다리나 지하철로 건너면 가장 가까운 타운이 '아스토리아'이다. 당시 이곳 주민들 중에는 동양인 백발 여자노인이 병과 강릉을 모으고 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노인에게 말을 건네서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한다. 다만 한구석에 노인이 쉬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세탁소였다. 점심때면 근처에 와서 서성거리며 떠나지 않기에 점심 값을 주면 사라지곤 한 것이 근 10년이 지났다 한다. 그러나 20세기가 저무는 마지막 해 가을 중순에 접어들면서 이 노인은 혼자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세탁소에 오가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점심 값을 주면 그대로 받아 놓고 계속하여 구걸을 하는 통에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부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오기 전에 벌써 손살같이 사라지니 경찰이 한두 번 왔다가는 더 안오게 되었다. 결국 가게 주인은 시 당국에 진정서를 내었다.

시에서는 이 노인을 "불가사의의 동양 노인"이라 명칭하고 상황 조사에 나섰다. 뉴욕시 당국은 이 노인이 정신병 환자 같다는 정보를 받고 뉴욕의 사립 기관이자 시청의 지정 사립 봉사기관인 '가정방문 간호사협회'에 의뢰하기를 "아스토리아 지역에 온데 없이 나타나고 간데없이 사라지는 신비스러운 동양 노인이 근처 사업체에 때때로 구걸한다니 조사하라"고 지시가 왔다. 이 간호협회에서 코넬 대학 병원 부속인 Gracie Square Hospital의 동양인 치료과에 연락이 되어 나에게 도움을 청해 왔다.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간호과장이 문기에 한국인 환자 같으니 내가 나가 보겠다고 하니 좋아하며 입원 준비를 해 놓겠다고 했다.

앰블런스를 타고 그 노인이 사는 근처를 한 시간 동안 돌아봤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세탁소에 들려 물어보니 며칠째 나타나지 않고 눈치를 찻는지 돈 달래지도 않는다고 했다. 다시 한번 그 노인이 사는 근처를 도는데 백발노인이 큰 키에 성큼성큼 큰 걸음

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차를 멈추고 창문에서 "누구 아니세요?" 하니 할머니는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말대꾸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자기 빌딩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경찰이 빌딩의 슈퍼(경비원) 도움이 필요하니 다음 날 다시 오자고 하여 돌아왔다. 가슴 아픈 일인 듯 했다. 다음 날 점심 전에 앰블런스와 함께 가정방문 간호사, 사

운 감정에 젖어 있었다. 그러던 참에 간호사가 "선생님, 이 노인 소지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잠옷도, 칫솔도, 화장품도 없는데 무엇을 갖다 주지요? 딸에게 편지를 놓고 가야 하니 여기 한글로 딸에게 편지를 써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어머니가 코넬 대학병원 동양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 찾아와 달라는

불가사의의 동양노인; 아! 38선아

-처자식을 살린 아빠의 비극

김혜암(58, 대뉴욕)

복 경찰 그리고 경비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때가 다가오니 그 할머니가 빌딩 가까이에서 보였다. 경비원을 앞세우고 빌딩에 들어가니 우리를 관망하던 노인이 손살같이 계단을 날듯이 올라가 버렸다. 6층 건물에 승강기가 없는 깨끗한 아파트 이었다. 그리고 넓은 대리석 계단이 멋있었다. 6층에 올라가 문을 따고 들어가니 할머니는 도망가려고 하였기에 경찰이 재빨리 수갑을 채워서 앰블런스로 데리고 갔다. 가구는 거의 없고 의자 몇 개와 매트리스가 마룻바닥에 깔려 있었고 침실에는 가방과 짧은 여인의 소유물이 보였다. 경비원에게 물으니 자기도 잘 모르지만 어떤 빌딩 사람이 그러는데 노인을 담은 짧은 여자가 저녁에 어두우면 나타나고 아침에는 사라진다고 말했다 했다. 경비원은 매달 이 노인이 400여 불 현금으로 집세를 꼬박꼬박 10년 이상 내고 있다고 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로 모두가 어리둥절했고 나만 동양인 인지라 이런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정상이냐고 물었다. 방은 깨끗했으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플라스틱 물병만 있을 뿐, 어떤 음식도 들어 있었던 흔적이 없었다. 이 노인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나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노인은 83세로 그 아파트에 거의 15년 가까이 살았다고 한다. 노인은 사회 보장금을 500여 불 타는데 늘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가서 수표를 받았으나 은행 거래가 없으므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Exchange)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 집세를 내고 나머지 130여 불은 모두 딸에게 줬다고 한다. 만약 딸에게 돈을 안 주면 딸이 어머니를 때리기 때문에 무서워서 남은 돈을 다 줬고, 그 딸을 그 돈을 가지고 매일같이 직장 간다며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다. 딸은 60대 초반의 미모의 한국 여인으로 키도 크고 동양인이지만 피부가 희고 몸매가 좋은 여자였다. 딸은 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 매일같이 여기저기의 공원을 드나들며 점심도 사먹고 하다가 밤에는 돌아와서 자는데, 그렇게 살아온 것이 벌써 5년 가까이 되었다 한다. 딸의 이름은 프란체스카(의명)이고 정신 분열병 환자로 캘리포니아에서 몇 년 병원에 있다가 도망 나왔는데 뉴욕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산다고 하니 LA시 당국에서 뉴욕으로 보내 주었다 한다. 할머니의 막내아들은 혼자 퀸즈지역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는데 어머니와 누이를 돌보다 지쳐 이제는 돌아보지 않게 된 게 벌써 5-6년이 넘었다 한다. 이 노인은 진짜 부랑인은 아니었지만 집은 있어도 생활의 근거가 없는 부랑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에 온 그 날로 그러한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나는 그 노인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어떻게 생존해 왔고, 병과 강릉을 팔아서 연명하면서 혈색도 좋고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했는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는 시 당국 사람들의 말에 동감하면서 나는 내대로 애처로

내용이었다.

입원 후 며칠 동안 이 노인은 한마디의 말도 않고 웅크리고 있었고 식사는 세끼 모두 한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먹곤 했다. 며칠 후에 딸 프란체스카가 찾아왔다. 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데리고 가겠다고 유창한 영어로 강제로 어머니를 입원시킨 것은 불법이고 인권 침해라며 원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막무가내였다. 나는 이런 피해망상증이 주로 나타나는 정신 분열병 환자를 많이 다룬 경험을 살려 이렇게 말해 보았다.

"프란체스카, 너의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을 전혀 안 하니 병력을 알아야 내가 퇴원도 시켜 줄 수도 있으니 나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했더니 싫다며 원장에게 데려다 달라고만 했다. 그녀가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환자를 내 방에 두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점심도 갖다 주면서 좀 쉬라고 두었다. 한두 시간 후에 가보니 좀 안심이 된 눈치여서 말을 건네니까 대답을 하였다. 프란체스카는 조용해지면서 이제 자기는 오고 갈 데가 없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나를 죽일래요? 어머니를 돌려보내 주지 않으면 저는 갈 곳도 없고 하니 그냥 죽을 거예요"라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직감적으로 자살의 위험성이 100%에 가깝다고 느꼈다. 그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 받은 후부터 미국 CIA가 언제나 뒤따르며 괴롭힌다고 했다. 남편은 미국인으로 외무성에서 근무했는데 해군 소속으로 한국동란 때 부산에 파견되었다가 그 당시 요정에서 일하던 프란체스카를 만나 열렬하게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했다고 한다. 결혼 후 얼마 동안 행복한 생활을 했는데 몇 년 후에 남편은 승진과 함께 구라파 각 나라에 2-3년씩 근무하고 옮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바람에 어느 한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전에 또 다시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해야 했고, 그런 일이 반복되자 자기는 점점 고립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자기를 집에만 두고 아무데도 데리고 다니지 않으니 마치 감옥살이를 하는 듯 했다고 한다. 자신은 그저 얘기 들을 기르는데 정신을 쏟다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 자기가 이혼을 해 주었으나 애들은 아빠를 따라가고 자기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뒤로 늘 감시를 당하는 생활이 지켜워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가 주는 100여 불의 돈으로 한 달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의 사회 보장금도 끊어지게 생겼으니 더는 살 길이 없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프란체스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동자와 눈물을 머금은 눈빛이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다른 정신병 환자의 망상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 결국 나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 "어머니는 언제 집으로 퇴원할지 모르니 당신이 어머니와 함께 여기 있어도 좋습니다.

물론 당신도 같이 입원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하니 그녀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없이는 못 사니까요. 여기 있으면 매일 어머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 염려 없지요" 라고 했다.

이 모녀는 약 2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차츰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돌아왔다. 약도 복용하고, 식사도 매끼 먹고,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동물이나 다름없던 원시생활에서 현대 문명의 생활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그토록 힘도 세고 강인하던 어머니는 양저렴 순해졌고, 몸도 무거워졌으며 거리를 쏘아 다니던 운동을 하지 않으니 근육이 풀어지고 늙은 기색이 완연히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두 달 동안에 그렇게 젊어 보이고 건강하던 백발노인이 이제는 거동도 느려지고 아픈 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정신은 맑아져 옛날 사연을 이렇게 차근차근 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평북 강계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일본 치하에서 애 아빠가 광산 노무장으로 있으면서 넉넉한 생활을 해 왔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자 밑에 있는 노동자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월남하기로 결심을 했지요. 어린애들과 우리 부부가 밤중에 집을 나와 평양으로 갔다가 황해도 사리원 남쪽에서 38선을 넘어려 했습니다. 안내하던 사람 그리고 애들과 나, 이렇게 셋이 철조망 밑 굴을 통하여 남쪽으로 나왔는데 아빠는 소련군에게 붙잡혔지요. 애들 아빠가 매 맞는 소리를 들었고 약 30분이 지난 후에 멀리서 총소리가 한 방 나는 것을 듣고 애들 아빠가 죽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지요. 남쪽 구조원들이 애들을 보호해 주었으나 나는 사흘을 철조망 근처에서 혹시나 아빠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어요. 그러나 결국 남쪽 사람들이 '이제 단념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는 실신했지요. 깨어 보니 수용소 안에서 있었으며 어린 것들이 옆에서 시중들며 나보고 좀 먹으라고 야단들이었어요. 그 무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는 서울로 와 용산 근처에서 노점을 차리고 창고 방에서 자면서 세 식구가 연명하였지요. 애들은 작은 판잣집에서 점점 커 가는데 학교도 못 보내 걱정하던 차에 한국동란이 발생하여 부산으로 피난민과 함께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20여 년 살다가 딸 프란체스카가 미국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 집에 같이 살며 살림도 돕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딸이 구라파로 떠난 후에는 아들과 둘이서 부산에 살았는데 프란체스카가 미국에 정착하면서 저는 아들과 함께 가족 이민으로 뉴저지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때 미국 시위는 벌써 다른 여자와 따로 살고 있었고, 애들도 자기 아빠 따라가 버리고 나니 다시 세 식구만 남게 되었지요. 그런데 딸이 정신병이라고 병원에 들락날락 하는 통에 나도 덩달아 세상이 귀찮아지더니 어느 틈에 딸과 같이 정신이 몽롱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집안도 가꾸고 했지요. 나는 자나깨나 내 남편을 잊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옆에 있는 것 같고, 왜 내가 다시 철조망 북쪽으로 안 들어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이에요. 나는 그분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느껴 집니다. 그분이 있는 곳이라면 이대로라도 당장 가고만 싶군요. 나는 그분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38선이 한이지요. 그 원망의 38선을 나는 한시도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긴 사연을 이야기하는 동안 83세의 할머니는 너무도 정서적인 어머니였다. "저의 딸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그 서러움 (다음면에 계속)



철새와 친구들

김혜자(66, 황철 부인)

남편이 개업을 그만둔 뒤부터 겨울을 후로리다에서 보내고 온다. 우리가 40여년을 살아온 엡스테이트 뉴욕은 봄 여름엔 날씨가 정말 좋은데 더위가 가시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난 벌써 청명하고 단풍 아름다운 가을을 반기기보다 추운 겨울이 오는데 싫어 한 해가 다 가버린듯 서운해 했었다. 그래서 다음엔 은퇴를 하면 꼭 겨울이 없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가 살까라고 다짐을 해왔었다. 이번 겨울이 세 번째로 후로리다에서 보내는 건데 거기서 상주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겨울에만 내려왔다 가는 사람들을 snow bird라고 부른다.

우리 아이들 하고 동생네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성탄절을 보낸 뒤 뉴욕을 출발해 버지니아에 사는 닥터 김진수씨 댁에 들린다. 날씨가 괜찮으면 골프도 한 차례 치고, 올핸 눈이 많아 하루 저녁 쉬고 Chapel Hill, NC에 사는 아들네 들려 손주들하고 며칠 놀다가 애클랜타 조지아에 들린다. 그곳엔 노재선, 정양수, 이준남씨가 사셔서 반갑게 맞아 주신다. 그 다음날 느긋하게 운전해 후로리다에 도착하면 된다. 올핸도 남쪽에 있는 Solivita라는 노인들만 사는 큰 단지인데 관리를 잘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올해도 또 그곳으로 갔다.

골프도 많이 치고 아침마다 돌이 한 시간씩 걷고 수영도 하고 Zumba 춤도 추고 체중조절 하겠다고 다이어트까지 하며 노력을 했는데도 얼마나 체중 줄이는 게 힘든 일인지 일주일에 1파운드 내려가면 다행인데 친구들과 저녁을 잘 먹으면 금방 2파운드가 올라간다. 출다고 남동생네가 다녀갔고 김진수씨 댁이 오셔서 매일 골프 치

고 맛있게 해 먹고 놀았다. 최순제씨가 근처로 내려 오셨다가 같이 만나 골프를 치기로 했는데 두 시간은 일찍 만나 회포도 풀고 같이 점심 먹고 골프치고 저녁 같이 먹고 밤늦게 헤어졌다.

미국의 중서부와 동부를 휩쓴 눈 폭풍을 뚫고 허서룡씨가 디즈니 호텔에 컨퍼런스 들을 겸 오셨다가 만나러 갔다. 농장에서 산 오렌지와 과일을 갖다 드리고 저녁은 같이 먹고 밀워키에도 들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남궁승씨 댁이 아이들과 디즈니 호텔에서 일주일을 보내신 후 그 다음날 우리 집엘 찾아 오셨다. 그 다음엔 이영일씨가 내려오신다고 해서 골프 스케줄을 잡아 놓았다. 또 전화를 하셔서 일기예보가 비가 올꺼라는데 어찌지 하니가 남편 왈 "여긴 비 안 와" 한다. 남궁승씨네랑 같이 모여 골프시간 상관없이 일찍 만나 얼굴보고 시간 보내자면 만났다. 골프 값을 내는데 이곳에 집을 갖고 사는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는 후로리다 주민이라서 값을 깎아준단다. 우리도 일행인데 다 주민 값으로 해줄 수 없느냐고 애교 있게(친구 표현) 웃으며 물어보니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래서 46불짜리가 38불이 됐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남궁승 씨 왈 "1불만 싸게 해주도 무지 기분 좋고, 1불만 비싸게 내도 되게 화가 난다구요" 하셔서 모두 그렇다면 웃었다. 저녁을 즐겁게 웃으며 먹었는데 이영일씨가 계산서를 꼭 움켜잡으시고 여기 세 사람은 백수들이고 자기만 돈 버는 의사니까 사주신단다. 돈 버는 친구 있는 것도 좋은 일이라며 또 웃었다. 우리가 집을 빌린 단지에도 한국 사람들이 50

집정도 되는데 보면 인사 나누고 하지만 친구는 아니었다. 동창들과 만날 땐 모두 기쁘고 재미있어 내년에 꼭 친구를 이곳에 있게 해야겠다. 김진수씨가 "니 내년엔 바둑도 갖고 온다. 밤엔 나랑 내랑 바둑 두면 딱 되겠다." 하셔서 바둑이랑 마작도 들고 가서 저녁때도 본격적으로 놀 예정이다.

2월말이 가까워오면 중간에 사시는 친구들이 전화를 하셔서 언제 자기네 집에 들리꺼냐고 날짜를 물으신다. 첫 번째 들린 곳은 조지아 근처에 사시는 노재선씨 댁이다. 정양수씨는 멀리 떨어진 아들네 집에 가 계시다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오셨다. 얼마나 고맙고 반갑던지 노재선씨는 마취전문이신데 통증의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나가 한의학과에 가서 침술을 배우셨단다.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시겠다고 해서 진단기계를 틀어놓고 진단도 받고 기호름이 어느 부위가 약하고 강한지를 알아서 침도 놓아주시고 자극도 주고 이 효리가 영원히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흥미진진했다.

닥터 노는 거의 20년 전에 만나서 나누던 얘기를 기억하는 나에게 믿기 어렵다며 재미있어 하셨다. 여러 친구들 집에 들려 봤지만 닥터 노 맥처럼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본 일이 없어서 우리 집에도 놀러 오시라고 초대는 했지만 어떻게 집을 치울지 은근히 걱정이다. 다음날 정양수씨랑 같이 만나 한 번 더 보고 떠나라고 하셔서 점심까지 먹고 차에 먹을 과일까지 이것저것 챙겨서 실어주시는 친구들과 헤어지지 섭섭해서 가슴이 먹먹했다. 결혼 후 내 동창회에는 거의 안 참석하고 남편 친구들과는 열심히 40여 년간 만나며 지내와서 이들이 내 친구들이다.

아들네는 5시간 운전하면 도착한다. 손주들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다 같이 영화도 보러가고, 산보도 같이 하고, 간식도 사 먹고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며, 고기도 안사는 연못에 가서 낚시도 도와주고 잠도 데리고

자고, 더 있다 가라고 조르는 손주들 학교 간 뒤에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또 네 시간 운전해서 버지니아에 사는 김진수씨 댁에 들렀다. 워싱턴 근처의 소문난 오리 요릿집엘 꼭 우릴 데려가야 한다며 멀리 운전해서 가보니 온통 벽이 유명 인사들이 사진으로 도배가 된듯한 집이었고 로라 부시가 단골손님이었던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뒤흔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 다음날은 Hazlet, PA에 사시는 윤명선씨 댁에서 우릴 기다리고 계셨다. 일 년에 한번 친한 친구들 보는 기회라며 닥터 윤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미세스 윤이 미리 전부터 전화를 해서 언제쯤 우리가 도착할지를 확인했었다. 닥터 윤이 음식도 뭘 준비하라고 미리 얘길 하신단다. 닥터 윤은 노총각시절부터 우리 동네에 사실 때가 족처럼 지냈었다. 내가 막내 낳을 때 위의 두 아이 베비시터도 해 주셨었다. 지금도 양쪽집 아이들이 다들 uncle 이라고 부르는 가까운 친구 분이다. 또 만나기로 하고 마침내 떠나온 지 오랜된 우리 집에 돌아왔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긴 겨울이었는데 우린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이 겨울을 보내는 것 같다.

축복

노승국 (70, 텍사스)

입자들의 영역으로부터 우주에 두루 깃든 불확실이 세속적인 '운'의 순명인제 질서, 아니 무리에서 비무리로의 거침없는 필연적인 귀결에 가냘픈 인간들의 못 저항이 모두 부질없는 헛 위안이라.

별 맑은 밤하늘 우러러 깊이 노니는 한잔 술이 내 아직 살아 숨쉬는 축복이라.



<전면에서 계속> 때문에 저렇게 미쳤지요. 제 월급(사회 보장금을 월급이라 했다)을 타서 집세 내고 남은 것을 고스란히 그 애에게 주고 밥 사먹으라고 했지요. 참 불쌍해요. 선생님, 제 딸을 살려 주세요.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는 많이 좋아졌으나 딸의 병은 약을 먹어도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아들이 와서 어머니와 누이를 만났으나 자기는 이제 아무런 도움도 줄 수도 없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면서 도우려 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옛 이야기는 하기 싫다고 거절했다.

입원 2개월 후부터 여러 양로원에 이 모녀를 함께 받아 달라고 의뢰했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한국인이 정신과 과장으로 있으며 상록회 노인촌의 고분으로 있는 분에게 부탁해 보았으나 그는 왜 내가 그렇게 그 환자들을 중요시 하느냐 할 뿐 그 슬픈 사정에는 동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후에 할머니는 한인이 있는 상록회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딸은 플라싱의 성인 홈으로 들어가 좀 더 자유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이 슬픈 6.25의 비극을 기억 속에 흘려보냈다.

많은 월남한 사람들이 처자식을 두고 아파와 아들이 먼저 떠나고 후에 가족이 월남한 경우는 많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월남인은 가족을 북에 두고 월남했다. 프란체스카 가족의 경우는 불행한 경우로 이산가족이 되었다가 미국에 와서도 38선의 비극을 잊지 못

하고 반세기를 하루 같이 산 한국인의 비애임은 정신과에서 말하는 정신적 타격 후유증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이 때로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다. 이 프란체스카의 어머니는 애들 아빠가 38선에서 총살당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한시도 그 장면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이 삶의 위안이고 보람이며 오늘의 고생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훨훨 날듯이 살아 온 인생이었다.

그녀의 추억은 이렇다. "38선으로 월남하는 안내원은 38 철조망에 다다르자 재빨리 땅굴로 손짓하며 기어들어갔어요. 애 아빠는 주저하는 저를 먼저 밀어 보내고 7살 난 딸을 밀어 보내니 3살 난 아들이 '엄마' 하고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를 듣고 근처를 순시하던 소련군이 들이닥쳐 애 아빠를 잡아 갔어요. 철조망 밖에서 세 식구는 애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한 시간이 영원같이 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짹'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잠 잠해졌습니다.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철조망 밖에서 사흘을 있었지요. 애 아빠는 우리와 떨어져 못 삽니다. 아마도 소련군이 잡아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쪽으로 도망치다 총살당한 게 분명합니다." 하며 어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처럼 감정과 눈물로 목이 메어 더 말을 이어 가지 못했다. 이 노인의 한은 38선이었다. 뉴욕에 까지 와서 살면서도 잃어버린 아빠에 대한 사랑의 일념으로 근 60년을 하루 같이 살아왔다. 그 노인에게는 좋은 음식과 옷과 사치스러운 물질이 헌신 짝 같은 쓰레기로 보였고 사람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역력히 보여줬다.

농담 골목

저는 여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죠?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 오빠, 허리에다 차면 아저씨, 없으면 할아버지. (면)

갑오년 말띠에 말(horse)과 말(talk)에 얽힌 이야기 몇토막

* 어느 마을에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말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친구 말들이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자 숫 말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할 말이 없네"

* 이웃 마을에도 부부지매가 남다른 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숫 말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모였던 말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자 암 말이 땀똥같은 눈물을 푹푹 떨어 뜨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해 줄 말이 없네요"

* 어느 바람기가 많은 암 말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숫 말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중 어느 날 변강쇠 말을 만나 멋진 데이트를 하고 나서 환호감에 취해 하는 말 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없네"

*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암 말이 무서운 성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경매와 선 후배 말들이 병문안을 와서 위로겸 충고의 말을 해 줍니다. "자네 아무 말이나 하는게 아니었어." 그러자 암 말이 숨을 거두면서 가냘프게 내뱉은 의미있는 말입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요." (이력승)

빈 강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속이 가득 찬 강통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소리 나는 강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만 들어있는 강통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한다. (김세)

어느 여자가 법정에 고소하기를 젊은 청년이 자기를 두 번 이상 강간했다고 했다. 판사가 청년에게 물기를 그 여자를 두 번 이상 강간한 것이 사실이냐고 했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녀와 42번 같이 잤소." 라고 대답했다.

판사가 그 청년은 무죄라고 했다. 어느 여자도 42번이나 강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철)

Female Medical Exam

During a lady's medical examination, the doctor says:

"Your heart, lungs, pulse and blood pressure are all fine. Now let me see the part that gets you ladies into all kinds of trouble."

The lady starts taking off her underwear but is interrupted by the doctor.

"No! No! Don't remove your clothes.....just stick out your tongue!"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3년 7월 20일 ~ 2014년 6월 30일

- 1941 이규용
- 1949 고영철 김지익
- 1951 오정희 이상하
- 1953 강수삼 이상봉
- 1955 노용면 박병원
- 1956 김익창 김신형 도상탁 민병각 박상기 서상철 유호준 윤신원
- 1957 강영섭 김양호 김용진 김일훈 박건호 박종식 이동성 이민자 임종원 임종식 정구영 정진묵 한성택
- 1958 김기태 김부근 김백년 김윤범 김순옥 김석희 김수산 김시한 노인규 류치열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유영호 이동목 이동립 이종용 이장섭 이종국 이상철 이만택 이운순 이희성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은섭 김한섭 나길진 박용순 반응균 방석운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탁 이영모 이종수 최대한 최진진 최용덕 최용천 최혜숙 한승업
- 1960 권기홍 김안주 김택경 김영환 박병돈 박춘명 박형순 전희근 조재동 오신중 염극용 이광준 이순환 이덕송 이상일 임종원 임필순 한성수
- 1961 강세부 강창욱 곽동린 고의걸 김영기 김영철 김유홍 박준환 박호성 서휘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재두 이재승 이한수 이희경 이희백 장성환 정두현 정의철 조은순 최공창 최지원 최용성 최태순 황현상
- 1962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구정울 남성희 문상규 민경환 박종건 박종승 박찬형 송영두 손영진 유충국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장병호 정정수 정 태 조명호 최영수
- 1963 권영재 권영조 고영희 김갑중 김광섭 김계운 김정일 김승태 김주용 김태웅 김택수 김현하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박세록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영섭 윤영욱 이기환 이능석 이병준 이승현 이범세 이재명 이호빈 임춘수 윤진수 장세곤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진병학 한광수 한기현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원영 김태환 라찬국 박한영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유 강 유광현 유효명 유창남 윤흥기 이광신 이용만 이정은 이정필 이주영 이종우 이종성 이우찬 이홍표 임병훈 오유섭 전희택 정유석 정인태 조동준 조성준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구경희 김건언 민경택 박수안 서좌일 손광호 이광선 이정희 이범석 이재진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정길화 전영균 조성구 지영환 최영인 채도경 채무원 홍수용
- 1966 권일성 김진수 김용재 김우신 김의신 김충규 남궁승 민발식 이영일 이성근 장한교 정양수 조관상 조규용 최순채 최영자 한일섭 허서룡 황 철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박정일 유진일 이근용 이민우 이정화 이준식 이종두 이소희 최무용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명원 김주평 김영남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진석 서윤석 송창호 이건일 유우영 이대용 임공세 안세현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김홍서 도상철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윤효윤 임응규 정한규 최종일
- 1970 노승국 송요준 여준구 유철희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태수 강창홍 광승용 고기영 김재홍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 훈 김호순 김창구 노재홍 박동수 박상효 배성호 서정자 서상현 장 철 정인용 조세진 양성훈 오동환 오상현 이원택 이희영 최수강 최영철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광호 김현배 김재석 이기진 이신재 장병호 정희현 최인섭
- 1973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방병기 서인석 심완섭 이계석 임준형
- 1974 권철수 구재훈 이흥재 이진현
- 1975 김자역 박인영 전경배
- 1976 정경화 최광희
- 1977 강준희 김동훈
- 1978 전영식 허경열
- 1979 최대용
- 1980 박남훈
- 1981 박법열
- 1982 차민영
- 1983 전원일
- 1984 조형기
- 1989 박성철
- 2000 황필규

31st Convention Donation

- 강신호(52)10000 김윤범(58) 100 김석식(62) 100 손영진(62) 75 정정수(62) 200
- 권영조(63) 300 이홍표(64) 500 허선행(64) 200 안병일(69) 200 윤호윤(69) 100
- 곽승용(71) 300 김성환(71)10000 김일영(71)3000 김유식(71) 300 김창구(71) 575
- 노재홍(71) 300 배성호(71) 300 온기철(71) 700 이원택(71) 500 이창우(71) 500
- 홍성진(71) 300 문대욱(73) 500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차민영(82)1000
- 백지혜(88) 500 안상훈(94) 300 한석진(명) 300 서울대학병원 1000
- 서울대학미주재단 500 헬리우드 병원 500 제니전 500 존백 2000

General Donation

- 이형모(49) 1000 오정희(51) 125 노용면(55) 500 김익창(56) 100 서상철(56) 25
- 김익창(56) 25 이동목(58) 100 한승업(59) 75 권기홍(60) 1000 강창욱(61) 175
- 이희경(61) 100 최용성(61) 100 박종승(62) 100 정 태(62) 375 최영수(62) 100
- 김계운(63) 75 이범세(63) 50 임춘수(63) 100 송용덕(63) 100 진병학(63) 100
- 권정덕(64) 100 김성철(67) 75 김희주(68) 100 이건일(68) 100 임준형(73) 100

Scholarship Fund

- 이규용(41) 200 김신형(56) 200 강상진(59) 200 김은섭(59) 200 반응균(59) 100
- 이희경(61) 100 황현상(61) 100 민경환(62) 100 박종승(62) 100 이기범(62) 125
- 한기현(63) 100 라찬국(64) 100 이건일(68) 100 서정자(71) 200 임준형(73) 100
- 김지익(75) 500 박법열(81) 100

Charity

- 최창송(58)1000 노인규(63) 75 조한원(63) 75 정인태(64) 50 홍선경(64) 100
- 이한중(65) 100 최영자(66) 100 강창홍(71) 100 민인기(73) 100 방병기(73) 100
- 임준형(73) 100

Green Project

- 최창송(58) 1000 김한중(62) 200 이용길(62) 200 민발식(66) 100 김주평(68) 100
- 김유식(71) 75 조세진(71) 150 서인석(73) 100 임준형(73) 100 박남훈(80) 125

Sigetop MoonJip

- 김갑균(54) 300 노용면(55) 1000 김해암(58) 500 박호현(58) 200 김병석(59) 200
- 강창욱(61) 200 서휘열(61) 200 손기용(61) 200 이한수(61) 200 이희경(61) 200
- 정의철(61) 200 이해원(61) 300 정두현(61) 200 오태요(62) 200 정정수(62) 200
- 정 태(62) 500 신영규(63) 200 이철남(64) 200 정유석(64) 200 허선행(64) 300
- 이한중(65) 200 이명희(66) 200 최순채(66) 200 최무용(67) 200 서윤석(68) 250
- 이건일(68) 200 서 탕(69) 300 노승국(70) 200 방준재(70) 200 홍 건(70) 200
- 김성환(71) 500 이원택(71) 300 조세진(71) 200 홍성진(71) 200 나두섭(73) 200
- 방병기(73) 200 임준형(73) 200

Member Directory Fund

- 박근수(49) 나수섭(50) 이상하(51) 노용면(55) 김신형(56) 김익창(56) 김양호(57)
- 임종식(57) 임종원(57) 유상환(57) 정구영(57) 차봉희(57) 김윤범(58) 송세엽(58)
- 이운순(58) 임영신(58) 김용덕(59) 김은섭(59) 김병구(59) 정태진(59) 이교탁(59)
- 최혜숙(59) 박준명(60) 박명근(60) 염극용(60) 무병혁(60) 이순환(60) 이종석(60)
- 한성수(60) 강창욱(61) 김유홍(61) 장성환(61) 진찬건(61) 최지원(61) 최태순(61)
- 황현상(61) 김한중(62) 민경환(62) 박종건(62) 윤홍철(62) 이기범(62) 이태봉(62)
- 권영조(63) 김현철(63) 김태형(63) 이범세(63) 송용덕(63) 장세곤(63) 하상태(63)
- 한광수(63) 권정덕(64) 김태환(64) 안운택(64) 이홍표(64) 전희택(64) 정인태(64)
- 허선행(64) 홍선경(64) 이재진(65) 이한중(65) 이한승(65) 정길화(65) 채도경(65)
- 곽일성(66) 장한교(66) 정양수(66) 최순채(66) 이소희(67) 한영수(67) 서진석(68)
- 서윤석(68) 서관우(68) 차재철(68) 최 철(68) 변영석(69) 이송공(69) 이용환(69)
- 윤효윤(69) 방준재(70) 강창홍(71) 김성환(71) 김유식(71) 김창구(71) 이성길(71)
- 이원택(71) 오동환(71) 조세진(71) 정진우(72) 오용호(72) 나두섭(73) 문대욱(73)
- 서인석(73) 임준형(73) 오인환(73) 권철수(74) 박인영(75) 김대중(76) 김승관(76)
- 김동수(78) 전영식(78)

서울의대 '동창회소식' 구독 안내

북미주에 거주하시는 동문중 모교동창회에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동창회 소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동창회 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clmaa@yahoo.com 516-365-5500(tel), 516-365-5501(fax)

제18회 함춘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 및 모집 공고

SNUCMAA 통합심의수상자

- 1998 유 태 준(59)
- 1999 김 승 업(60)
- 2000 조 세 진(71)
- 2001 한 혜 원(61)
- 2002 최 영 자(66)
- 2003 후보자 없음
- 2004 이 영 인(86)
- 2005 수상자 없음
- 2006 안 연 승(64)
- 2007 수상자 없음
- 2008 김 의 신(66)
- 2009 김 광 식(71)
- 2010 수상자 없음
- 2011 최 인 섭(72)
- 2012 한 창 규(81)
- 2013 최 용 성(61)

1. 수상인원 및 연구비

- 수상인원: 연구업적 3명 범위내
- 연구비: 함춘동아의학상- 3,000만원(연구업적부문 1명)
- 연구비: 함춘의학상- 3,000만원(연구업적부문 2명 이내)
- 시 상: 본회 "함춘 송년의 밤" 행사 석상 (2014년 12월 개최예정)

2.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심사대상

- A.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정회원으로서 미국의학교육기관, 의학연구기관, 보건의료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회원
- B. 수상후보자의 Lifetime Publication과 연구업적을 제출하면 본 위원회에서 예심한다.
- C. 중복수상 희망자는 최근 5년 이내 발간 저서 또는 2년 이내의 학술전문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심사함.

3. 수상후보자의 추천

- A. 미주내 신청자는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에서 예비심사하고, 미주동창회장이 추천으로 본국 동창회에 등록한다.
- B. 미주동창회원으로 2년 이상 미주동창회 년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C. 자천과 타천을 모두 환영한다.
- D. 신청서(자천서)와 추천서가 재미 동창회 사무실에 상비 되어 있음으로 연락 바람.
- E. 신청/추천 마감: 2014년 9월 15일

SNUCMAA-NA 독립심사수상자

- 1990 강 수 상(53)
- 1991 유 태 준(59)
- 1992 김 승 업(60)
- 1993 김 의 신(66)
- 1994 조 세 진(71)
- 1995 최 인 섭(72)
- 1996 박 종 회(75)
- 1997 이 종 식(82)

Sechin Cho, M.D.

Chair: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SNUCMAA-N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snuclmaa@yahoo.com

(516) 365-5500, (516) 365-5501(fax)

2015, 32nd Annual Convention

세계의 중심,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제32차 학술대회가 내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됩니다. 다채로운 행사와 학술대회, 그리고 허드슨 강위의 Luxury Private Yacht 선상에서 맨하탄 야경을 바라보며 펼쳐지는 Grand Banquet는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알차고 성대한 Convention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오니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2015년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사진 공모전

사진은 추억을 담은 그릇이자 예술입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사진학'에 정진하는 마당에 동창회에서는 '결작'들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진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주제:

- 1) Artistic photos: 한 명당 10편 이내 출품이 가능함. 가능한한 자세한 설명 첨부 요망함.
- 2) Memorable photos: Category 및 작품수의 제한이 없음. 유년시절, 학창시절, 전체동창회, 지역동창회, 동기회 등의 행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환영함. 년도, 장소 및 관련된 설명 첨부 요망함.

응모 요강:

- * 마감일: 2015년 3월 31일
- * Digital 사진: 파일 용량 10MB 이하의 JPG file; size는 제한 없음.
- * Analog 사진: 300 dpi 이상의 scanned JPG file; scanner가 없으시면 원본을 본부에 보내주셔도 됨.
- * 접수: snuweb@gmail.com (by e-mail)
snuca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0050 (by mail)

* 더 자세한 유의사항은 snucaa.us website내 "Photo Contest"에서 보실 수 있음.

수상작 선정:

- * 2015년 4월 한 달간 snucaa.us에 등록된 모든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1,2,3등 및 가작을 선정, 소정의 상금을 학술대회장에서 수여할 예정임.
- * 새로 등록을 하시는 동문들께도 투표권을 드리니 많은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유의사항:

- * 모든 출품된 작품들은 출품후 1-2일내 snucaa.us website내 "Photo Contest"에 게재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바람.
- * 응모한 작품들을 새로 발간 예정인 Directory 및 시계탑 문집 또는 시계탑에도 사용될 수 있음.
- * 가능하면 모든 작품들을 수록한 멋진 사진첩을 발행할 예정임.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회장 서인석 (73)
시계탑 편집장 이원택 (71)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aa@yahoo.com www.snucaa.us